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7일)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군종법사 결혼 인정 독신 조항 흔들리나

[이슈] 고법 혼인 군종법사 복무적합 판결 여파

노덕현 · 윤호섭 기자

혼인을 한 군종법사도 현역복무가 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군승 독신을 명시하고 있는 조계종 외 타종단 승적 군종법사 활동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예외조항 삭제 10년을 맞은 군승 독신제도가 덩달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2월 25일 김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계종 승적을 가졌던 김모 씨는 2005년 임관해 해군에서 군종법사로 활동했으며, 2014년 12월 여자친구와 혼인했다. 조계종은 2015년 3월 김모 씨가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했다.

이후 김모 씨는 혼인이 가능한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해 군종법사 직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국방부는 파송 주체인 조계종 소속이 아닌 이유로 2017년 4월 김모 씨를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정, 7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모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모 씨가 조계종 규율만을 위반했을 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김모 씨가 2008년 12월부터 이미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 종헌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종헌 제9조 3항에 있던 군승 독신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삭제 전 혼인한 군종장교에게만 승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2월 2001년도에 임관한 군법사의 유사 사례에 대해 국방부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2017년 4월 열린 대중공사에서는 현역 군종법사 중 110명이 비구 군승이며, 23명이 가족이 있는 법사로 공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대중공사에서는 전역한 군법사 260여 명이 결혼으로 인해 조계종 승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법사는 "결혼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에도 비구승의 길을 택한 군법사들이 많았다. 이번 사례가 해당되는 군법사는 일부"라면서도 "일부라도 이들 또한 일원이다. 현재 비구 군승 중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승적을 옮겨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군종법사가 조계종 비구승이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비구승으로 서원을 세웠지만 속퇴하는 이들이 있듯이 비구 군승 중에서도 생각이 바뀌는 이들이 있다"며 "이와 함께 출가자 감소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군법사 수급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비구군승으로 정체성을 세운지 10년이 됐다. 군종포교사 등 보완하는 방안을 조계종단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계종헌 위반, 승적 제적
태고종 승적, 복무적합판결
비구 군승 10년 만에 타격

국방부 불복 대법원에 항소
"군종교구 무시 판결" 비판

현재 국방부 측은 대법원 상고했으며 상고심은 3월 28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군종교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 최종판결도 고법 판결과 같다면, 종단 차원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며 "종단이 청정비구로 군종제도를 구성하려는 방침은 변경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군승 독신 예외조항 삭제를 대표발의한 주경 스님은 "법원 판결이 폭넓게 해석된 것 같다. 하지만 군승제도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파견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증을 맡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인물의 파견철회 권한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담당기관이 보증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이유가 사라진다. 보증인 자격을 무시한 판결로 이해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꽃공양 다시 봄이다. 추웠던 날들이 지나가고 꽃들이 돋는다. 추운 겨울을 견딘 나뭇가지가 있어 꽃은 핀다. 추운 겨울을 견딘 것이 어디 꽃나무뿐일까. 우리 모두가 겨울을 견디었다. 이제 우리 모두 봄을 맞는다. 불보사찰 통도사 마당에도 봄이다. 극락보전 마당에 홍매화 향기 가득하니 '극락'이 아닐 수 없다. 세상 모든 것들이 '까닭'인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많고 많은 자리 중에 불보 자리에 핀 꽃이라. 이보다 더한 꽃공양이 있을까.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10.27법난기념관 봉은사로 변경 추진

조계종 종무회의서 결의… 문체부에 부지 변경 요청

토지매입 문제 해결 위해
치유센터는 개운사로 분리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이 부지를 서울 봉은사와 개운사로 옮겨 추진된다. 정부에서 조계종의 부지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 기념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중앙종무기관 종무회의서 10.27법난기념관 부지를 봉은사와 개운사로 변경하는 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부지 변경 요청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조계종이 10.27법난기념관 건립부지를 변경한 데는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조계사 인근에 추진되던 건립사업에는 약 20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업예정지에 근대문화재가 있는 데다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높은 매입비를 요구하면서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매입 토지의 국가 기부채납 문제도 얽혀 현재까지 조계종이 매입한 부지는 4필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불용예산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252억 원으로 편성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을 올해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년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조계종이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사업부지 변경이다.

종단불사추진위에 따르면 기념관은 봉은사 주차장, 치유센터는 개운사 옆 승가원 법인사무국 건물 부지에 짓는 것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정했다.

남은 절차는 문체부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사와 기획재정부 협의다. 기재부의 예산 재편성 등이 이뤄지면 조계종은 본격적인 기념관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재 봉은사가 주차장에 대법륜전 건립불사를 계획하고 있어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10.27기념관을 봉은사에 짓기로 종단과 협의했다. 대법륜전 불사가 불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념관과 성격이 비슷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부지 성격상 층고를 높이 올릴 수 없어 지하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및 불교관련 종사자 1900여 명을 강제 연행해 고문을 자행하고, 전국 사찰 및 암자 5700여 곳을 수색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사 출가열반정진주간 선포 승보공양 A5 | 성태용 명예교수의 '서유기의 불교적 수행세계' A7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안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daehaeng.org
이메일 ds7788@hanmaum.org
전화 031) 470-3276, 3277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1 제2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 선정 분야 대상 1명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2 묘공학술장학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응모 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공모 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3 제3회 계절발표회
- 시간 | 2019.03.16.(토) 13:30 ~ 17:3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논 제	발 표	논 평
대행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고찰	황금연(경희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서재영(동국대)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혜원스님(동국대), 혜선스님(대행선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4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모든 분야
- 투고 시기 | 연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 투고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한마음연구》 게재 확정시)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교구 목적불사 돕는 특별분담사찰 추진

조계종, 관련 종법개정안 총무원장 발의 계획

교구중심제 공약 이행 위해
교구본사주지회의 의견 수렴
교구별 최대 2곳까지 지정
2020년 회계연도부터 책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교구중심제의 한 축인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이 추진된다. 오는 3월 말 개원할 중앙종회 임시회서 관련 종법개정안이 통과될 시 원활한 교구 목적불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법 개정 추진 계획' 을 논의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의 필요성은 2018년 제5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제기됐다. 이는 승려복지와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등 교구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타당성을 놓고 오랫동안 논의됐다.

이번 회의서는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 범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측 계획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는 종회의 동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승인을 거쳐 2곳까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앙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된 곳은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교구특별분담금 책정은 중앙분담금위원회 심의와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본사주지는 전 회계연도의 교구특별분담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교구종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으로는 개정안 시행 후 지정된 교구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교구특별분담금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책정키로 했다.

이 같은 총무원 측 계획에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처음부터 본사주지들이 교구특별분담사찰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없었다"며 "특별분담사찰을 여러 곳으로 늘리지 않도록 2곳으로 제한한 것도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회의석상에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몇 곳까지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있었지만 총무원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종회 의안 제출 마감 전 종무회의를 거쳐 의안 제출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종회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올해 주요 계획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행 스님은 앞서 지속적으로 교구중심제를 강조하며, 교구 목적사업 추진 재정 확보를 위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사주지회의서는 이외에 교육원이 4월 10일 봉행할 예정인 '교육불사 후원법회' 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교육원은 현재 종단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승가교육 개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후원법회를 마련했다.

교육원 측은 "국내외 석 · 박사 과정에 수학하는 학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상주교수를 비롯한 전문연구자 연구비 지원,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 연수교육 무료화 등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회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후원법회는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현황 영상과 교육불사 격려 메시지 영상 시청, 원로회의 의장 격려사, 교육불사 후원금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개발원 기금 부당전출 논란 확산

원장직무대행 정현 스님 6일 공개, 개발원대책위 반발

"이사회 미승인 상태에서
7억8000만원 불법 전출"
대책위, '재정 통합' 반박

불교여성개발원의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을 사단법인인 지혜로운여성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장 직무대행 정현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원이 지난 7년간 이사회 승인 없이 지혜로운여성으로 7억8356만원을 불법 전출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현 스님은 "그동안 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은 회계와 자금, 통장을 구분해 관리했지만 개발원 이사회 승인 없이 막대한 금원을 불법 전출했고, 지금까지도 지원금 전출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이 이사회 미승인 상태서 지혜로운여성으로 전출한 금액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억8356만여 원에 달한다.

정현 스님은 "여성불자 108인회나영108 등 불교여성개발원 사업에 지정 기탁한 후원금도 지혜로운여성 운영비 등에 사용됐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 대책위 측은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이 주재한 이사회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해왔다. 포교원도 매년 산하단체 지도점검을 해왔다"며 "지혜로운여성 통장을 사용한 것은 기금 안전성과 후원자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해서일 뿐, 특수목적기금으로 유용치 않고 적립해왔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측은 또한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은 대표가 겸직할 뿐만 아니라 회원도 거의 동일해 재정이 통합 운영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 두 이사회에서 각각 통합된 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석심 포교원 포교차장은 "조계종 포교단체 명의로 들어온 기금을 안전성과 세제혜택을 빌미로 사단법인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며 "개발원장 미임명에 따라 지혜로운여성만의 이사장을 선출하며 사단법인 독립성을 강조하던 분들이, 재정의 불법전출이 드러나자 통합재정 운영이 원인임을 밝힌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설 조계종 비구니 특보에 혜도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3월 4일 임명장 전달



처음으로 신설된 조계종 총무원장 비구니 특별보좌관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혜도 스님을 비구니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에서 혜도 스님을 비구니 특보로 추천해주셨다.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회와 비구니계를 대표해 집행부를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혜도 스님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며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경기 광주 백련암 주지 탄문 스님을 임명했다. 탄문 스님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구니 특보 혜도 스님은 대행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졸업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을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탄문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고불총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용덕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 광주 백련암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100일 종회' 끝은 원장 불신임?

중앙종회 3월 14일 속개
총무원 "불법종회 거부"
출가재일 이유로 청사 폐쇄

종회 "예결산 심의 우선"
이면도로 노상 종회도 불사



지난해 12월 5일 태고종 총무원의 청사 출입 제한으로 청사 앞 이면도로에서 개원한 제316회 정기중앙종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5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노상 회의' 를 연 태고종 중앙종회가 유례없는 100일간 회기의 끝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회 전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긴급 발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사간동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316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할 것을 예고했다. 316회 정기회는 지난해 12월 5일 총무원 측이 중앙종회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면서 청사 앞 이면도로에서 개원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3월 15일까지 100일간 회기를 이어갈 것을 결의, 징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총무원은 중앙종회의 회의 속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중앙종회 측에 전했다. 무엇보다 정기회 폐회에 앞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에 전달한 종회 거부 공문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성립된 바 없이 개인감정에 따라 밀어붙이려는 총무원장 탄핵종회에 총무원이 응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 안건에 관해서 총무원장 자리에서 촌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는 현재까지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의 상황에 따른 발의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본지에 "정기회는 예결산 심의가 우선이다.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도 총무원의 미온적 태도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총무원 측 소명에 따라 (불신임안이) 발의될지는 모르겠다. 의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이처럼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월 14일 종회 속개 역시 대치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무원은 불교명절인 출가재일을 명분으로 청사를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앙종회는 대부분의 태고종 사찰이 성도재일과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종회 일정을 정하는 것은 종회의 고유권한이다. 총무원이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개인재산도 아닌 총무원 청사를 종회의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대행선 · 불교학’ 진흥, 올해도 이어진다

대행선연구원, 묘공학술상 등 공모사업 잇달아

올해로 2회 맞은 묘공학술상
대상 1천만원 최대 규모 자랑
‘묘공학술장학’통한 인재 양성
오는 3월 16일 계절발표회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는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고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마음 주인공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 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이다.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학술상으로,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대상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선학 · 불교학 전문가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심사결과는 예비와 본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대상 수상 논문과 우수상 논문들은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되며,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묘공학술상 외에도 신진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를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마음연구〉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게재비 400만원을 지급한다.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된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묘공학술장학’ 이 그 중심에 있다. 묘공학술장학은 석 · 박사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으로써 불교학관련 전 분야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또한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매년 3 · 6 · 9 · 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논문이 각 1편씩 발표된다.

올해 첫 계절발표회는 오는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황금연 경희대 교수가 ‘대행 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고찰’ 을,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 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서재영 동국대 박사, 혜원 스님(동국대)과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학술상과 묘공학술장학, 학술지 〈한마음연구〉의 발간 등 여러 가지 학술 진흥사업을 통해 불교관련 연구자 모두를 아우르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술 연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3대 목표인 생활불교 · 현대불교 · 세계불교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술 진흥사업을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과 보편성을 확립하고 한마음사상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에 한국명상수련원 들어선다

영주시–참불선원 MOU, 2020년 완공 목표로



경북 영주시에 1만평 규모의 불교명상수련원이 들어선다.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3월 4일 영주시청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연계한 한국명상수련원 건립 및 운영에 양측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한국명상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참불선원은 1만평 부지에 1000여 명이 동시 수행 가능한 명상수련관을 비롯해 운영본부동,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한다. 특히 야외 명상캠프장과 개인 수행시설인 꾸띠 오두막, 명상둘레길 등을 조성해 수준 높은 명상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시가 조성하는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관광단지를 표방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473억 원을 들여 선비촌과 인접한 곳에 96만974㎡로 조성 중이다. 주요 시설은 한문화R&D지구, 전통숙박 및 전통문화지구로 구성되며 한복 · 한식 · 한옥 · 한글 · 한지 · 한음악 6대 테마를 중심으로 한다.

참불선원은 2016 세계명상대전, 2018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 2015 · 2017 명상힐링캠프 등을 개최하며 국내 명상저변 확대에 앞장서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수려한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힐링도시 영주에 명상대가인 각산 스님이 이끄는 한국명상수련원을 유치, 유형의 전통문화와 무형의 명상이 결합된 선비정신을 되새겨 영주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각산 스님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최교일 국회의원,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정연만 前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비정규 노동자, 산재대상 아닌 ‘생명’

3대종교, 현대제철 故이재복 사망 규탄 기자회견

조계종 사노위 외 3월 6일
현대본사 앞에서 입장 발표
원청 책임강화, 직접고용 등
실질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현대제철은 생명을 집어삼켜 돈을 토해내는 죽음의 공장을 당장 멈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이주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는 3월 6일 서울 서초구 현대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故이재복 비정규노동자 죽음에 대한 3대종교 기자회견’ 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사노위 위원 스님 4명을 비롯한 종교계 관계자, 태안화력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월 20일 50대 하청노동자 故이재복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몽 스님은 “고인이 일하던 당진제철소에서 13년 간 무려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일 비정규직, 일용직, 하청 노동자라서 그저 산재처리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왔다면 대참회해야 한다”며 “힘 없는 노동자 죽음을 외면하고 방치한 현대그룹이 갚아야 할 과보가 수미산처럼 높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몽구, 정의선 현대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리고 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스님은 당부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3대 종교계 등은 3월 6일 서울 현대 본사서 故이재복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측에 묻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사회노동위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김용균법’ 은 2020년 1월 첫 시행된다.

사노위 등은 “정치권은 김용균법 통과로 하청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 내몰려 있다”며 “3월 4일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곳에서 또 다시 컨베이어에 끼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며 현대제철 및 정부 당국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대 종교계는 사측에 △유족과 노동자에 대한 사과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당진제철소 가동 중단 및 진상조사 △책임자 엄중 처벌 △직접고용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강력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노위 등은 현대제철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사측은 “할 말이 없다. 면담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고려 유일 천수관음도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조선시대 목판 · 경전도



조선시대 경판과 경전, 고려시대 불화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잇달아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제진언집 목판,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포함한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 목판과 경전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18세기 초 대표 궁중회화로 꼽혀 온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은 국보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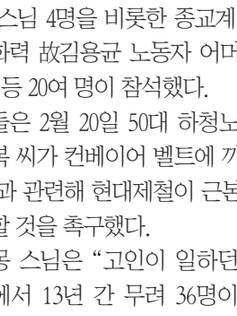
보물 제2014호 ‘제진언집 목판’ 은 1658년(효종 9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에서 다시 새긴 ‘중간(重刊) 목판’ 으로, 불정심다라니경 · 제진언집목록 · 진언집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 목판은 1569년(선조 2년)에 전라북도 완주 안심사(安心寺)에서 처음 판각됐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흥사 소장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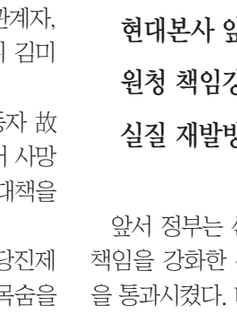
보물 제1306-2호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 성개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법화경〉을 정서(精書)한 판본을 바탕으로, 1405년(태종 5년) 전북 완주 안심사에서 승려 신문이 주관해 간행한 불경이다. 이 경전은 구결(口訣)이 전반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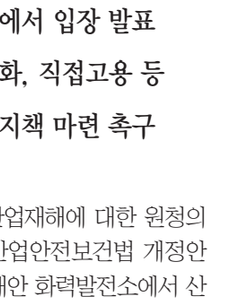
보물 제2015호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는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 시대 작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불화이다.

보물 제2016호 〈불정심 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하면 액운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관리단체 등과 협력해 국보 · 보물 지정 문화재들이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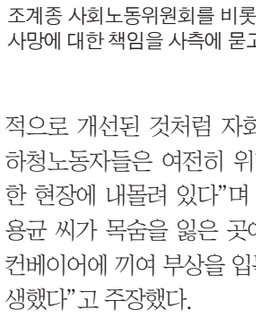
원행(遠行) 대종사 | 구도의 서


월정사 멍청이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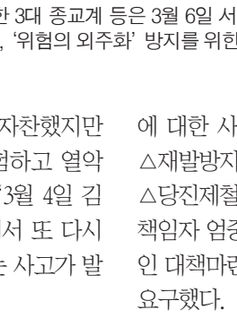

월정사 탑돌이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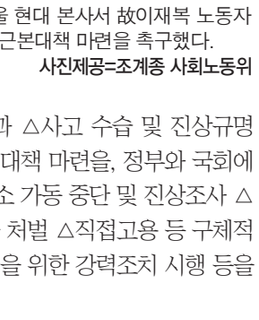
10.27불교법란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눈썹돌리는 소리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만화희찬스님 시봉이야기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20,000원



탄허대선사시봉이야기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20,000원



예전에 탄허 큰스님께서 “멍청아!”하시면서 휘호를 하나 써주셨다.

溪磵不能流得住
계간불능유득주 | 계곡의 물은 쉼없이 흐르고 흘러

竟歸大海作波濤
경귀대해작파도 |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 파도치리라

수행자는 물의 길을 가는 이다. 계곡과 하천과 강을 지나 바다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물의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지표면의 물방울일 뿐. 그 물방울 더 작아지면 땅 속 깊이 더 낮은 데로 스미어 이윽고 백두산 천지처럼 높은 뫼 위의 신령한 정한수로 샘솟는다. 낮은 데로 흐르지도 못하고 더 낮은 곳으로 스미지도 못한다면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오직 작아지고 낮아진 사람만이 번뇌를 끊고 대자대비를 품는다. 대자대비를 품지 않는 적멸이란 있을 수 없다. - 원행 대종사 법문 중에서

보시 중에 으뜸은 법보시라 합니다. 불사 중 가장 큰 불사는 법문을 널리 퍼뜨리고 오래 남겨주는 저술의 불사가 아닐는지요. 원행 대종사의 저서들은 탄허 대선사와 만화 희찬스님의 시봉이야기뿐 아니라 10 · 27불교법난 등 우리나라 근현대 100년간의 불교역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큰 불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소개글 올립니다. - 원행 대종사를 모시는 자광회 일동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스님, 탄허스님, 만화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하다. 불교종단 분규, 비구 · 대처 분규와 10 · 27 불교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으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다. 오대산의 큰 별, 탄허스님과 은사 만화스님이 열반하시자 49재를 모신 다음, 제2의 출가로 가야산 해인사로 가서 성철스님 문하에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고 있던 어느 날, 꿈에 탄허스님의 벼락같은 현몽이 있고 그 현몽을 받들어 대전의 자광사로 가다. 자광사를 중창불사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동해시 삼화사 주지 소임을 맡아 갔을 때, 팔과 하체가 훼손된 채로 약사전에 모셔진 약사철불 복원불사를 하려다가 고려시대 노사나철불임을 발견하고 삼화사 본존불로 모시다. 이후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 포교에 힘쓰던 중, 하필이면 탄허스님 법어집을 출간하는 날 구룡사 대웅전이 전소되다. 구룡사 대웅전 중창 불사를 마치고 월정사 심검당으로 돌아와 수행승의 희비를 회고하다.
2019년 1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오르다.

봉은사, 호국불교 전통계승 나선다

3월 6일 신년기자회견, 신도 친절캠페인 등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 봉은사가 호국불교를 주제로한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도 친절캠페인 등 신도편의 증대 사업과 중창불사 3단계 등 사찰 위상 확대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3월 6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진각 스님, 기획국장 지오 스님, 김상훈 신도회장, 장영욱 종무실장, 김영환 총무팀장, 이상혁 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봉은사는 △친절, 화합, 혁신 도약 △가람정비 중창불사 추진 △호국불교도량 위상 강화 △신도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최적화 △포교, 문화, 사업에 중점 △지역소통의 중심 발돋움 등을 기치로 내 걸었다.

호국불교, 역사 스토리텔링 개발

가장 먼저 호국불교 도량으로서의 봉은사 위상이 강화된다. 봉은사는 최근 백곡처능선사의 '간폐석교소' 연구와 세미나 등을 연 바 있다. 올해는 보우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백곡처능선사, 영기율사, 청호 스님 등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밖에 문정왕후, 추사 김정희 등 봉은사와 연관된 인물, 역사 스토리텔링도 함께 진행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중흥과 호국불교 정신이 있다. 가령 매화당의 경우 서산대사의 매화꽃 일화와 맞닿아 있다. 봉은사 곳곳에는 불교의 맥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해 오신 스님들을 비롯한 인물이 많다.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봉은사 인물사전 형태의 책자 발간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욱 종무실장은 "중앙승가대, 불교학술원 등과 협력해 봉은사가 소화하기 힘든 연구사업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 계승, 신도편의 불사 박차

이와 함께 다양한 중창불사도 이뤄진다. 봉은사는 현재 3단계 중창불사가 진행중이다. 신도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진다.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 지정 후 40여 년간 법적 규제로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웠으나 2009년 역사공원 변경과 2013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봉은사는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 1단계로 2017년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한데 이어 2018년 2단계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3관과 범종루 개축 등을 진행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2019년 종무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으로 매화당 신축불사, 응향각 개축불사, 운하당 요사채 신축불사, 화장실 개축, 석축불사 등이 진행된다. 또 오봉산 석굴암에 위치한 일주문 환수불사가 진행되며 3단계 핵심사업으로 대법륜전 건립도 추진된다.

이중 봉은사 일주문 환수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수 시 일주문은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된다. 현재 오봉산 석굴암 측과 협의 중이다. 대법륜전은 2020년 부처님오신날 이전 착공을 목표로 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축전도 열린다. 원명 스님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전통공연,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봉은사 하면 강남 도심에서 전통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반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조직 확대, 친절캠페인 진행

신도조직화 또한 박차를 가해 108거사림회가 부처님오신날 무렵 발족된다. 108거사림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학자, 법조인, 의료인 등의 전문직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밖에 봉은사 남성합창단이 창단된다. 봉은사는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청년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연화합창단 등 연령별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창단되는 남성합창단은 45~65세 사이의 남성불자로 구성되며 현재 40여 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신도들을 배가시키기 위한 친절캠페인도 진행된다. 친절캠페인은 사중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신도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매월 초하루에는 전 대중이 신도를 맞이하는 행사다.

원명 스님은 "법정 스님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인은 '친절' 이라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친절이 가장 큰 포교"라며 "신도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미래 포교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특히 봉은사는 신도들의 보시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무국에 사업팀을 신설했으며,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차문화체험관인 연회다원을 세계 명차를 만드는 명소로 만들고, 맛 본 차를 바로 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응향각 불사가 완료되면 봉은사만의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매장도 운영된다.

불교용품점에는 특화상품 개발, 판매하고, 법당의 생화공양, 지화공양 문화조성 및 꽃 배달 서비스도 진행된다.

또 봉은사 특생의 빵과 과자 개발과 불교용품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예산 절감과 타 사찰 물품 공급의 중계자 역할도 진행한다.

원명 스님은 "불자 감소와 사찰의 미래를 위해 신도의 기도, 보시금 의존을 낮추는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도회장도 "사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행동치료 배우고 불안 날려볼까

목우선원, 총 11회 강연회

내 안의 불안과 걱정을 치유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오는 3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목우선원 강의실에서 명상상담 아카데미 월례강연회를 개최한다.

'불안과 걱정, 수용하고 통찰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월 2회, 목요일 오후 7시와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총 11회가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을 비롯해 총지사 주지 동진 스님, 상담심리학 박사 용진 스님, 김광호 조우 코칭상담센터장, 김창중 동양대 교수, 윤미숙 한국요가문화협회 이사 등 명상상담 전문가들이 나선다.

강연회 참가 신청은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홈페이지(www.medicoun.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강연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월례강연회를 이수하면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감정코칭전문가 자격시간과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자격과정 15시간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오는 3월 3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목우선원 2층서 '수용전념치료에서의 가치작업'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2236-5306

신성민 기자

불교 · 가톨릭 탈원전 공동 세미나 '눈길'

생명탈핵실크로드 등 3월 20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

불교계와 가톨릭계 인사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생명탈핵실크로드(이하 생명로드) · 후쿠시마원전오염수국제소송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를 맞아 탈원전 정책 세미나를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서 개최한다.

'국립 탈원전 안전 연구소(가칭)'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환경위원 종걸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 석일웅 수사 등 불교 및 가톨릭 인사들이 생명로드 100인 위원 자격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생명로드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를 단장으로 달라이라마 등 세계 각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탈원전을 위한 세계 생명헌장을 전달하는 순례를 진행해오고 있다. 100인 위원은 탈원전을 위해 범종교계가 협력하는 취지의 생명로드에 100만원을 기부한 동참자들이다.

발제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의 '원전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은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의 '유럽 각국의 원전 상호감시', 이원영 교수의 '국립탈원전안전연구소 설립 필요성과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이 교수는 "추후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도움으로 세계적인 원전 안전감시 조직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행사를 추진 중"이라면서 "세미나 이후 원전 실무자,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결의안을 청와대 측에 직접 공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얘들아, 유네스코 山寺 탐방해볼까?"

동행,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참가 모집

중학생 '멘티' · 성인 '멘토'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불교계가 새로 등재된 한국 사찰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학생 및 성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이하 동행)이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새롭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지 승원 사찰이 탐방지에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봉정사, 마곡사, 통도사, 대흥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선암사 등을 비롯해 종묘,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수원 화성, 해인사 대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를 1일 또는 1박 2일 탐방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연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월 1회 주말마다 여행을 떠난다.


2017년 남한산성 수어장대를 탐방한 참가자들. 사진제공=동행

참가자는 중학생 멘티와 이들을 인솔할 성인 멘토로 나뉜다. 멘티는 서울경기 지역 980여 학교에서 추천 받아 저소득 및 일반 가정 청소년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과 교감하며 1년을 함께할 다양한 직업군의 성인 멘토는 80여 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삼성이 탐방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예비 멘티 및 멘토들은 3월 31일까지 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동행은 "1년 후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해외 문화유산 탐방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유적지를 탐방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고, 멘토와 고민을 나누며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2)737-9595 김지원 기자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접점 논한다

현대물리학과 불교는 어떻게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오는 3월 19일 오후 7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서 3월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양장 얽힘과 사물의 실재성-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현대물리학과 불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대상 도서는 김성구 교수의 저서인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이다. 강사인 김성구 교수는 서울대 문리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충남대 교수,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dharin.cafe)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 다짐합니다

출가열반정진주간 선포
조계사 승보공양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조계사는 3월 7일 승보공양 전공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신도대표들이 혜총 스님과 지현 스님에게 승보공양을 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승보공양 후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는 불자들. 사진=박재완 기자

출가 · 열반재일 앞두고 정진 의지
14일 입재, 15~21일 법문 · 기도
“무상의 이치 아는 게 최고 공덕”

전국 사찰 1주일간 기도 정진
통도사 말사 · 108배 수행단
사찰들 순례하며 ‘삼보일배’

“지극한 마음으로 승보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지현)가 승보공양으로 출가열반재일 정진 주간을 선포하고 수행정진을 다짐했다.

조계사는 3월 7일 대웅전에서 열린 초하루법회에서 승보공양 헌공의식을 봉행하고 출가열반재일 정진 주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날 헌공의식에는 신도를 대표해 정미령 신도회 수석부회장과 박영환 신도회 자문위원장이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도 합장하며 스님들을 예경했다.

초하루 법회 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혜총 스님은 승보의 중요성과 출가 · 열반재일의 의미를 법문했다.

혜총 스님은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거룩한 부처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이어 나갈 스님들이 있어야 한다. 스님이 없으면 불법이 존재할 수 없고, 부처님도 신도들도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승보공양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부처님께서 이른 6가지 공덕을 열거한 스님은 “가장 중요한 공덕은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며 “싯다르타 태자도 무상함을 알아 출가하고 6년을 고행해 정각을 이뤄 부처가 됐다. 그리고 45년 전법하고 열반에 드셨다. 우리도 오늘 지금을 살며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은 음력 2월 8일 출가했고, 음력 2월 15일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 일대기가 2월 한 달에 모두 담겼다”면서 “계를 지키고 수행 정진해 진실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설했다.

조계사는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출가열반재일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정진주간 기간동안 조계사는 매일 오전10시 법회를 봉행한다. 참여 불자들은 경전을 함께 독송하고 참선과 108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40분간 요가강좌에 이어 108염주 만들며 108배하기,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초청 법사의 법문도 진행된다. 출가재일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열반재일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3월 1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성효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다.

또한 조계사는 신도들에게 승보공양 후원을 받아 출가 · 열반재일 회향 후 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릴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은 부처님 출가 · 열반정진주간을 맞아 정진을 다짐했다. 신도들을 대표해 승보공양을 올린 정미령 신도회 수석부회장은 “오늘 승보공양은 출가열반재일을 준비하고 정진을 다짐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출가열반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은 시기가 1주일이어서 정진 주간을 선포하고 수행하는 사찰들이 적지 않다. 올해에도 전국 주요 사찰들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 경남 지역 사찰들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14일~21일 설법전에서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기도를 실시한다. 정진 기도는 〈금강경〉 독송 및 화엄예찬, 석가모니불 정근 등으로 진행되며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 까지 이어진다. 정진 기간 동안 오전 11시에는 ‘팔상(八相,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위해 일생 동안 나타내 보인 8가지 변상)’을 주제로 법문이 진행된다. 법문은 △만초 스님(연수국장)-도솔래의상 △선림 스님(포교국장)-비람강생상 △혜철 스님(총무국장)-사문유관상 △혜남 스님- 유성출가상 △덕문 스님(율원장)-설산수도상 △선본 스님 (기획국장)-수하항마상 △도암 스님(율원 교수사)-녹원전법상 △영일 스님-쌍림열반상 순이다.

출가재일을 맞아 삼보일배 수행정진도 진행된다. 삼보일배는 3월 14일~20일 오후 2시 통도사 무풍한송로에서 진행되며 경남 부산에 위치한 통도사 대표 말사 및 108배 수행단이 공동 주최한다. 삼보일배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일정은 14일 정법사, 15일 홍법사, 16일 108배 수행단, 17일 홍법사, 18일 바라밀선원, 19일 백양사, 20일 해남사 순이다.

삼보일배는 만초 스님이 이끄는 108배 수행단이 절 수행을 진행하다 2년 전부터 통도사 개산대재와 출가재일을 맞아 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해는 각 사찰에서 함께 동참할 의사를 밝혀 확장됐다. (055)382-7182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출가재일을 맞아 3월 14일 오후 6시 30분 대웅보전에서 유발상좌 수계식을 봉행한다. 이 행사는 영 · 유아기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들에게 불연을 맺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051)866-7771

부산 미타선원(주지 종호)은 3월 14일~21일 오전 10시 경내 극락보전에서 ‘부처님 일대기 설법’ 및 〈불유교경〉 독송 기도를 실시한다. (051)253-8680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주지 일관)는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참회정진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한다. 3월 14일 경내 청풍루에서 입재하며, 3월 21일 오전 10시 회향한다. (031)527-5974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출가열반재일 특별기도를 봉행한다. 사시기도 후 〈금강경〉 독송한다. (02)3218-4800

전국 주요 사찰 출가열반주간 행사는

불교의 4대 명절은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을 이른다. 특히 출가정진을 통해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신도회 자문위원장도 “니르바나(nirvana)는 ‘불을 불어서 끄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이라며 “정진 주간 동안 계를 지키고 수행하며 바른 불자가 되는 길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역복지 활성화 불교가 주도”

(재)원광장학재단, 10년째 장학금 전달해

“제게 주어진 나머지 삶은 장애인과 어려운 학생,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회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원광장학재단(이사장 지광)은 3월 3일 원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1회 장학금 전달 법회를 봉행했다. (재)원광장학재단은 전달 법회에서 대학생 6명에게 각 200만원, 고등학생 11명에게 각 50만원 총 175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재)원광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장학생 218명을 선발해 총 1억6000만원을 수여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원로의회 수석부의장 박원묵 스님,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 이헌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사장 지광 스님은 “앞으로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지역복지를 위해 더욱 전문화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광 스님은 지난달 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울타리 장애인 사회 기업’을 출범했다. 현재 장애인 70명을 고용했으며, 올해 6월까지 6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광사 부지에 한방 암 전문병원을 오는 10월 착공해 지역민을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안학교 설립 및 장학금 조성 모금 사업을 기획 중이며 원광사에서 1999년부터 이어온 백미나눔도 지속할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진 다짐’한 전북불교 인재들

전북불교대학, 불교학 · 법사과 총 104명 입학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2기 불교학과 및 제27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3일 전북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불교학과 77명, 법사과 27명이 입학을 알렸다. 행사에는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전주 정혜사 회주 지섭 스님, 곡성 통명사 주지 법중 스님, 김인석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전북불교대학은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어도 싫지 않은 이런 공간이었으면 한다”며 “마음엔 평화, 입가엔 미소가 가득한 학교생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중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대학 학인들이 처음에는 배울 것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하다가 연말이 되면 배울 것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해 올 연말에는 많은 것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정 스님 정신, 아직도 큰 울림”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9주기 추모법회

“무소유의 맑은 삶은 지금도 법신이 되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법정 스님 열반 9주기를 맞아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법정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법회를 3월 2일 맑고향기롭게 서면 사무국에서 봉행했다. 추모법회에는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성주사 회주)을 비롯해 맑고향기롭게 운영위원, 자원봉사자와 조계종부산불자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등 사부대중 230여 명이 동참했다.

흥교 스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사부대중이 함께 뜻을 모아 이어가고, 특히 박수관 회장의 노력으로 맑고향기롭게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장학금 전달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활동 등 사회 어두운 곳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다”고 격려했다.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며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지금도 스님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족투사 애국심, 불교가 계승”

부산 범어사, 금정中서 3.1운동 100주년 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금정중학교에 태극기 물결이 가득 찼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스님들은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3월 7일 부산 금정중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정중학교는 일제강점기 당시 범어사 지방학림이었던 명정학교의 후신이다. 범어사는 명정학교 독립운동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범어사 명정학교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부산에서 최초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공식적인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으로 알려진 3월 11일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 좌천동 거리보다 앞서는 기록으로, 당시 만세운동 장소는 동래장터였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부산 최초 독립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명정학림을 알리고 순국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다. 기념식은 명정학교 영상이 나오는 가운데 명종 33타로 시작됐으며 국민의례 및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다. 이어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이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발원문 낭송,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진혼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들의 기념사와 추모사도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금정중학교의 전신인 명정학교는 부산 독립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자 민족 투사들의

지방학림 명정학교 중심으로
부산 최초 만세운동 주도해
선열들 희생 다시 되새기며
독립운동가 추서 활동 다짐

애국심이 모인 집결지였다”며 “내 조국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호국정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독립국에서 자유롭게 산다”며 “끈질긴 집념과 투혼으로 나라를 사랑한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쉰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 현장에 참여한 범어사 3.1운동 유공자 유족들의 모임도 진행됐다.



부산 범어사가 금정중학교에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대중이 태극기 물결을 이루고 있다.

100년 전 범어사 명정학교 독립운동 당시 옥살이를 한 유공자는 총 34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유공자 중 훈격된 독립운동가는 15명이 전부다. 또한 유공자 유족 현황이 파악 안 돼 독립운동가 추서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범어사는 “앞으로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기념식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립유공자를 위한 활동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우영(오긍상 독립운동가 자녀 · 범어사 3.1운동 유공자 모임) 회장은 “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보다 못 받은 분들 더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유족 가운데 윤석문 씨는 대통령 표창 당시 받은 훈장을 금정중학교에 기증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애국활동을 널리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범어사 명정학교는 1906년 6월 금어암에 사립 명정학교로 개교했으며 범어사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이후 범어사 3.1만세운동은 명정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19년 3월 7일 동래 장날 선언문을 배포하고 만세를 제창해 부산지역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부산 또는 대구형무소에서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렀으며, 당시 일제는 3.1 만세운동을 빌미로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을 강제 폐교했다.

門 활짝 열린 통도사 염불대학원

1기 신입생 23명 등록
각종 의식 2년 본과과정

통도사가 염불대학원 입학식을 열고 첫 시작을 알렸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6일 해장보각에서 입학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로써 통도사는 총림 구성요소인 선원, 율원, 강원 그리고 염불원까지 완벽하게 갖춘 종합수행도량이 됐다.

개원식에는 방장 성파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어산어장 인묵 스님,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제1기로 입학한 비구 19명과 비구니 4명 등 23명의 신입생이 함께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개원을 축하하며 “염불은 부처님을 염하는 수행으로 염불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포교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염불대학원 개원을 축하하며 현응 스님과 인묵 스님의 축사도 이어졌다. 현응 스님은 “영축총림은 기존의 선원, 율학승가대학원, 승가대학에 더해 염불대학원까지 구비하게 됐으니 조계종 종헌에 의한 총림 요소를 모두 완비한 곳이 됐다”며 “더욱 노력해 염불과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은 “법고창신의 자세로 더욱 노력하고 현대화와 더불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통도사는 3월 6일 해장보각에서 입학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업이 진행될 설선당에서 거행한 현판식 모습.

개원 축하법회 후 사부대중은 염불대학원 수업이 진행될 설선당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한편, 염불대학원은 2년 본과과정을 운영한다. 본과과정은 상용의식, 재의식, 목탁과 법고 등 불전사물, 바라무와 나비무 등 작법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 혜일 스님, 도경 스님, 중본 스님이 담당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경 법전 대종사 73주기 추모 다례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3월 2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고경당 법전 스님 73주기 추모 다례재〈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 다례재는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대구BBS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은 “큰스님의 수행정신을 닮아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수행에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전통범음범패
학 인 모 집

개강일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접수기간 상시모집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 오후 2시 ~ 6시
수강료 1개월 10만원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 사진 1매
강주스님 덕 안

교육과정
1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의식
2 49재 천도재 의식 전반(시련 ~ 봉송)
3 사물 다루는 법(목탁, 요령, 태징, 북)
4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다게 작법
• 관욕바라 • 사다라니바라 • 운심게 작법
• 화의재바라 • 도량게 작법 • 긔경이 작법

접수 및 강의장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전화번호 051)558-5077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실크로드 인문학 리더스클럽

“서유기는 손오공의 마음 수행담”

주제 : 서유기의 불교적 수행세계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성태용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태동고전연구소 故임창순 선생에게 한학을 연수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단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는 선우’ 대표로 재가불자운동을 펼쳤다. 주요 저서로 〈어른의 서유기〉〈주역과 21세기〉 등이 있다.

인문과학원 학림은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3월 5일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 교육관서 ‘제1기 실크로드 인문학 리더스클럽’을 진행했다. ‘서유기의 수행세계와 현장법사의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이번 불교인문학 강좌는 총 12강으로 구성됐다. 이날 성 교수는 첫 강의서 “〈서유기〉는 불교와 도교 사상을 담고 있는 수행기”라며 “소설 행간에 담긴 불교적인 심오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서유기〉는 명나라 시대 작가 오승은이 쓴 소설입니다. 저자는 불교와 도교 모두에 밝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유기〉는 근본적으로 불교가 주가 되고, 도교 사상이 곁다리로 붙습니다. 불교와 도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뜻을 읽어낼 수 없는 책이 바로 〈서유기〉입니다.

마음 수행길의 첫 번째 장애

손오공이 서역으로 출발하자마자 여섯 도둑을 만납니다. 도둑들 이름이 ‘안간희(眼看喜)’ ‘이청로(耳聽怒)’ ‘이후애(鼻嗅愛)’ ‘설상사(舌嘗思)’ ‘신본우(身本憂)’ ‘의견욕(意見欲)’ 입니다. 여섯 도둑들 성이 안이비설신의 즉, 감각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다, 기뻐한다’ ‘듣다, 성내다’ ‘냄새 맡다, 사랑하다’ ‘맛보다, 생각하다’ 등 감각작용과 감정을 이름으로 합니다.

손오공은 단숨에 도둑들을 물리치고 출발합니다. 이 대목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전의 손오공 행적은 정도를 걷지 못했습니다. 힘은 있는데 잔재주라고 할까요? 손오공은 힘은 있지만 올바른 지향을 갖지 못한 인간의 행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에게 당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인고의 세월을 겪고 새롭게 경을 가지러 출발하는 대목입니다. 정도로 향하는 첫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챕터 이름이 바로 ‘심원귀정 육적무종(心猿歸正 六賊無踪)’ 입니다. 심원은 마음 원숭이로, 손오공의 정체는 단순한 원숭이가 아닌 마음이라 불리는 원숭이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요. 나중에는 인간 마음 가운데 특히 지적인 측면입니다.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가 나오기 전에는 어리석음이죠. 심원귀정 육적무종은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서니 여섯 도둑의 자취가 없구나’ 란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훔쳐가는 여섯 감각기관을 육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걷는 데 첫 번째 장애가 바로 여섯 감각기관에 끌려다니는 것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감각기관의 유혹에 흔들리면 제정신 못 차리고 산다는 의미죠. 이처럼 〈서유기〉 각 챕터마다 달린 목차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유기〉 출발점은 손오공

〈서유기〉 이야기는 현장 삼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손오공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삼장이란 한 구체적인 인간이 있기 이전에 어떤 영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개인적 존재 이전에 인간의 영적인 뿌리가 있어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영근(靈根), 신령스러운 뿌리 · 근본이라고 합니다. 현장 삼장이 있기 전에 벌써 손오공이 있는 겁니다.

손오공은 화과산이란 아주 오묘한 산에서 태어납니다. 그 산정에 기묘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천지의 정기가 모여 돌 속에서 손오공이 탄생합니다.

‘인간의 마음’ 상징하는
손오공 탄생부터 시작
진정한 스승 현장법사
만나 正道 걷는 여행

부모 없이 태어난 돌 원숭이인 겁니다. 이는 인간의 영적인 근원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를 손오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나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한 평생 살다가, 우연히 죽고 나면 끝나는 존재입니까? 육체만 가지고 인간이 될 순 없죠. 정신의 뿌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우주의 섭리 속에서 작용이 일어났고 숫자가 맞아떨어져서 기묘한 바위 속에서 손오공, 돌 원숭이가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라는 존재는 결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저자는 손오공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 이전에 정신적 · 영적 측면이 유구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우연 속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섭리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손오공의 뿌리이자 우리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손오공은 폭포가 장막처럼 늘어진 수렴동이란 별천지를 발견하고 그 덕분에 원숭이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스스로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손오공은 마음을 냅니다. ‘죽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 ‘죽음을 벗어나는 길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냅니다.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리심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존재에 안주하는 마음은 거기서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손오공은 원숭이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왕 노릇을 하다가 그걸 버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마음 계발과 ‘눈뜬’ 스승

손오공이 있던 곳은 동승신주(東勝身洲)란 곳입니다. 인도인들의 세계관에는 네 대륙이 있어요. 동승신주, 서우화주(西牛貨洲), 남섬부주(南贍部洲), 북구로주(北俱盧洲)입니다. 우린 남섬부주에 삽니다. 남섬부주가 4대륙 중에 가장 형편없는 곳입니다. 동승신주만 해도 제법 지내기 좋은 괜찮은 곳이거든요. 손오공이 동승신주를 떠나 우리가 지내는 세상인 남섬부주에도 잠시 들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는 인간들이 하는 꼴이 아주 가당치않아서 실망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남섬부주는 고해입니다. 삼사라(samsāra, 윤회) 즉, 참고 참고 참아야 사는 세상이라고 해요.

손오공은 남섬부주를 지나 서우화주에서 비로소 스승을 만납니다. 한 나무꾼이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는데 손오공은 그가 스승인줄 알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선 같은 분에게서 노래를 배웠다고 하면서 그 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스승이 바로 수보리조사입니다. 여기서 수보리조사는 금강경에 나오는 그 분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허구적인 등장인물인데, 저자가 일부러 장난을 친 것인지는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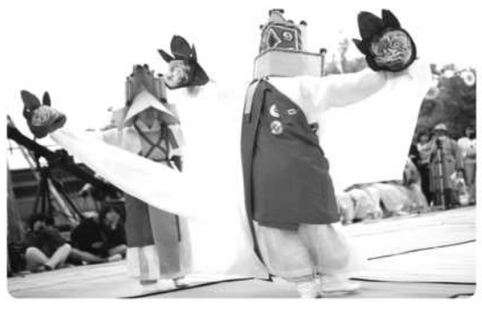
이 수보리조사는 신선 계통의 스승인데요. 나무꾼이 수보리조사를 만나려면 가라고 알려준 동네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서유기〉의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나무꾼은 ‘영대방촌산 사월삼성동(靈臺方寸山 斜月三星洞)’에서 수보리조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저자의 재치가 드러나는 이 부분을 해석해볼까요? 신령스런 누대인데 크기가 사방 한 치(3cm)밖에 안 되는 산인데, 비스듬히 누운 달에 별 세 개 뜬 골짜기래요. 사람의 마음 크기가 어떤가 할 때 보통 방촌이라고 합니다. 방촌지간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맨날 다툰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작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기운 달에 별이 3개 뜬 것은 ‘마음 심(心)’ 자이죠. 이걸 글자를 깨트린다고 해서 파자라고 합니다. 영대방촌산도 사월삼성동도 모두 마음입니다. 손오공이 마음 산 마음 골짜기에 가서 도술을 배웠다고 표현한 거죠. 마음의 잠재능력을 끌어올려서 마음 계발을 했다 이겁니다.

〈서유기〉 전체가 마음계발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 원숭이가 제 갈길 찾아서 성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성불은 완전한 인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잠재의식과 현 의식의 괴리가 완전히 해소되고 온전한 현 의식이 돼 버리는 경지입니다.

뒷이야기를 보면 손오공이 도술을 배워서 천상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은 바로 잘못된 마음 계발, 올바른 지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계발은 여러 길로 가능한데 손오공을 통해 우리는 정도, 올바른 지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수많은 요괴들은 대도를 걷지 않고 소도를 걸어서 생기는 수많은 병폐들인 거예요. 삿된 길을 통해 마음 계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스승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손오공이 수보리조사를 만나러 가죠. 눈 밝은 스승을 찾아서 말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을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 13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 이지만 소리가 월등하고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사찰에 시설이 되었던 시스템을 차에 그대로 재현하였으니 염불 인생들은 이 소리에 내 염불을 한 번 실려 보시지요.

▣ 본품은 염불전용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A/S는 본사의 생명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청 락

천 년 비밀 담은 대중신앙 상징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⑤ 고려 혜거국사와 망월사



망월사는 조선시대 대중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진언집을 펴낸 사찰이었다. 이후 한국불교 결사를 이끌어 낸 터전이 됐다.

망월사 서쪽 편 기슭에 혜거탑(慧炬塔)이 있다. 이 탑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인물로 여겨졌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10세기 경기도 갈양사(葛陽寺)에 있던 혜거국사(惠居國師)의 존재도 한 몫 하였다. 갈양사는 지금 용주사의 옛 이름이다.

2017년 10월 천 년의 비밀이 벗겨졌다. 서울 도봉서원(道峯書院) 하층 발굴현장에서 영국사 혜거국사 비 일부가 발굴된 것이다. 비편은 길이 62㎝, 폭 52㎝, 두께 20㎝ 정도였다. 발굴된 비편에 새겨진 글자는 281개인데 256자 정도가 판독할 수 있었다. 이 비편의 발굴로 영국사의 정확한 위치와 건립 시기를 알 수 있었고, 다른 동명이인과 혼돈도 사라졌다.

국사의 휘는 혜거(慧炬)이고 자는 홍소(弘炤)이며 속성은 노씨(盧氏)이다. 고려 태조(太祖)가 후삼국을 통일할 즈음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출가하여 송나라로 유학하였다. 법안 문익(法眼文益)에게 법을 배울 때 도안(道安)과 그의 제자 혜원(慧遠)에 비길 정도로 덕이 높았다. 귀국한 후 광종(光宗)이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통합하려 할 때 지혜를 내어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혜거국사는 말년에 영국사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멀지않은 곳에 망월사를 중창하였다. 비편이 이곳에서 발굴된 것으로 보아 입적 후 부도와 비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사는 조선 세종 때 진관사의 경내가 좁고 물이 더러워 수륙재를 옮기려 한 곳이다. 그 무렵의 관료이며 불자였던 김수온(1410-1481)이 영국사를 노래한 시가 있다.

골짜기 물은 졸졸졸 길가로 흐르는데
(澗水潺潺瀉路隅)
행인이 가리키나니 스님들 머무는 곳이라네
(行人指點是僧區)
수풀 헤치고 객이 이르니 가을은 저물려 하고
(披蓁 客到欲秋暮)
면벽 수행하던 선사에 햇살이 비끼네
(面壁禪趺斜日晡)
푸른 바위 반쯤 솟아 우러를 만하고
(翠石半天高可仰)
큰 강은 바다로 이어져 아득히 보이네
(大江連海遠堪盱)
삼생의 일 아득하여 아는 이 없으니
(三生事杳無人識)
불전을 다시 짓는다 해도 오히려 기억할 수 있을까(佛殿重營尙記無)

이 무렵까지 존재했던 영국사는 폐사되어 도봉서원이 되었다. 1573년(선조 6)에 남언경(南彦經)이 양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평소 흠모하던 조광조(趙光祖)의 학문과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서원 건립을 계획하였다. 1574년 9월 부제학 유희춘(柳希春) 등이 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선조는 다른 곳과 중첩되는 점과 도성과 가까운 것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림들의 청원으로 마침내 '도봉'이라는 사액이 내려지면서 영국사의 전지 외에도 호남의 면세지 100여 결이 지급되었다. 이후에도 조광조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도봉서원은 300여 년간 서울 · 경기 지역 선비들의 주요 교유처가 되었다.

김수온의 사후 도봉서원 건립까지 90여 년이다. 이 사이 영국사가 폐사되었고, 비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땅에 묻혔다. 부도 역시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을 것이다. 국사를 흠모하던 대중은 사리를 모실 곳을 찾았다. 그곳이 망월사였다. 그런 까닭에 지금의 부도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민중 아우른 망월사 진언집

조선조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한 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차례 종파가 축소되어 결국 선교양종으로 통합되었다. 명맥만 유지되다가 급기야 양종마저도 폐지되면서 불교의 근간이 흔들렸다. 우수한 인재와 재원의 부족으로 불교문화를 창출할 힘이 없었다.

경제력을 상실한 사원의 불교의례는 점점 기복적이고 주술적으로 흘러갔다. 주술화의 핵심은 진언이었다. 불교신앙의 신비함이 응축된 아이콘이다. 예전부터 신비로움을 전하기 위해 진언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런 진언이

선 · 교 갈등 해소한 혜거국사
영국사 폐사 후 망월사 안치
대중 교화 사찰로 발돋움

상용화 되면서 진언집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800년(정조 24) 망월사 주지 영월(暎月)은 전라도 화순 만연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수정하여 중간하였다. 그는 망월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선월당을 세우는 등 전각의 건립에도 힘썼다. 진언집이 중간될 때 발문을 쓴 사람은 수관거사(水觀居士) 이충익(李忠翊)이었다. 그 역시 1896년 천봉탑비(千峰塔碑)의 명(銘)을 쓰는 등 망월사와 관련이 깊다.

망월사 진언집은 목판으로 모두 121판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불사였다. 시주자 명단만 목판으로 3판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시주자 가운데 특히 상궁 6명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이 발원한 내용이 모두 죽은 부모의 영가를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 신앙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불사에는 양주지방에 사는 신도들만 동참한 것이 아니었다. 설악산 신흥사와 금강산 건봉사도 시주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진언집 중간의 감독을 맡은 거사 지영(智瑩)은 1795년(정조 19) 양주 불암사에서 간행한 〈불선천지팔양신주경〉의 간기에도 보인다. 이것은 망월사와 불암사의 간행사업에 모두 관여하고 감독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지방의 불교신도가 한 사찰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찰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망월사에서 발간된 진언집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국가적 차원과 민중적 차원의 종합적 신앙의식이 담겨져 있어 당시 시대적 여건 속에서 불교 신앙의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교적 치국이념이 정립되었지만 지배층과 일반 기층민의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형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진언집에 실려 있는 진언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량없는 종교적 복덕에 대한 신앙관이 내재되어 있다. 실제 진언집의 말미에 그런 신앙적 영험을 첨부하여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불교의식에서 많은 진언들이 독송되는 신앙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런 신앙적 경향은 밀교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관에도 진언이 첨부되어 대중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그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런 신앙관은 이미 한국불교에 내재되어 있던 경전을 축소해서 독송하는 신앙과 의미가 일치하는 점이다.

근대 용성의 망월사 만일참선결사회

망월사 천중선원은 1925년 11월 용성이 만일참선결사회를 시작한 곳이다. 만일이면 27년 하고도 145일이다. 시간으로 볼 때 한 평생 참선하자는 뜻이다. 처음 결사에 수좌 50여 명이 동참하였다.

용성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였을까? 일본불교가 침투한 이후 계율에 대한 문제는 한국불교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일본 승려들은 오래 전부터 축처영실(畜妻營室)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개항 이후 한국 불교에도 전해져 지계 정신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각 본말사법이 제정될 때 주지를 비구계를 수지한 자로 제한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구계를 수지할 때 대처육식한 자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법이 제정될 때 불만을 가진 승려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분위기로 인해 대처육식의 승려에게 법계증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이 지속되자 한국 승려들도 일본 승려들 같이 점점 계율에 대해 관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922년 5월부터 시작된 사법 개정은 처음에는 전통유지를 지켜가는 쪽으로 흐르다가 1925년 무렵 오히려 승려들의 대처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1926년 5월 총독부 학무국장은 대처육식이 만연해진 한국불교 현실에서 형식으로 이를 피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였다. 그리고 법률상으로 승려에게 대처육식을 허용하는 것은 시세에 순응하는 조치이지 파계를 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그렇게 되면 승려 가운데 소임을 맡길만한 승려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물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승려가 많기를 바란다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한국 불교의 청정성 유지를 위해 대처육식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용성은 석왕사 주지 이대전, 해인사 주지 오회진 외 127명의 승려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장래를 위해 대처육식의 생활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를 총독부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고 불교계도 바뀌는 상황에서 간혹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취처하는 승려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펼쳐놓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겠다고 선전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불교 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를 망하게 하는 일로 생각하였다' 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승려들은 이런 개정에 대해 1,500여 년의 인습(因習)을 혁신하는 계기이며 시대에 순응하는 조치로 여겼다. 자연히 참다운 수도자는 줄어들었다. 그러자 용성은 망월사에 있던 만일참선결사회를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27년 8월 만일참선결사회를 자진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 학무국은 한국의 모든 사찰이 본말사법을 개정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1929년에 이르면 대부분의 본사들이 이 개정을 완료하여 한국 불교의 지계 정신은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그 해는 참다운 한국불교의 수행이 사라진 해이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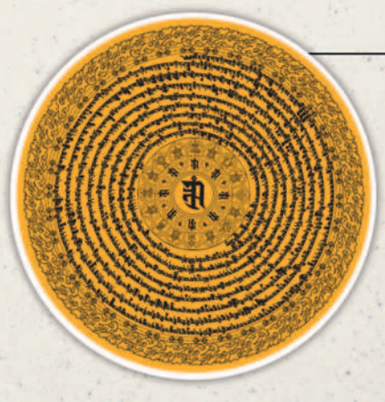
천도되길 원하십니까? 장수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다라니를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염송하면 "모든 악업이 닦이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위신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3도리천에서 제석천에게 천자가 죽은 후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시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제석천은 음성이 아닌 정수리의 육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 다라니가 남갤마다라니입니다.

액 자 100,000원
액자를 구매하신 분은 남갤마다라니 21일 기도 축원해 드리며, 차량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크기 3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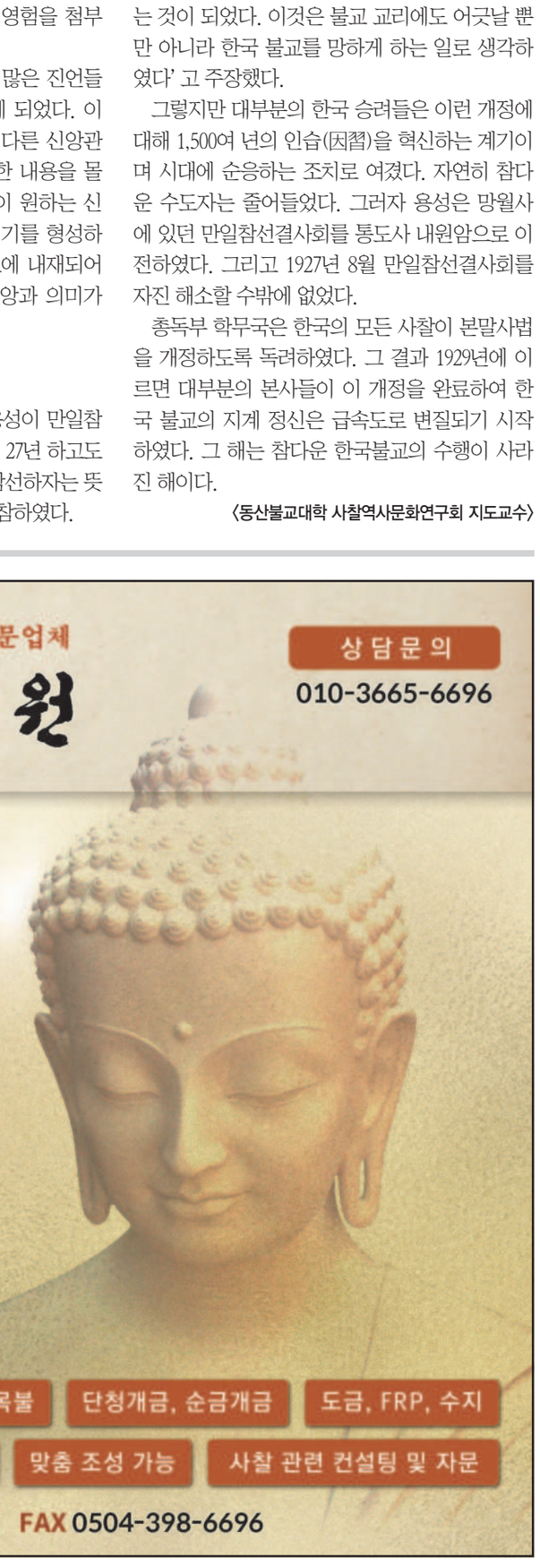




차량스티커 10,000원
남갤마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차량 운행 중 미물살생에 대한 과보에서 벗어나고 사고방지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붓다평화위원회 032)522-5554 / 010-6272-1655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마음 먼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세요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⑤ 迷妄의 불안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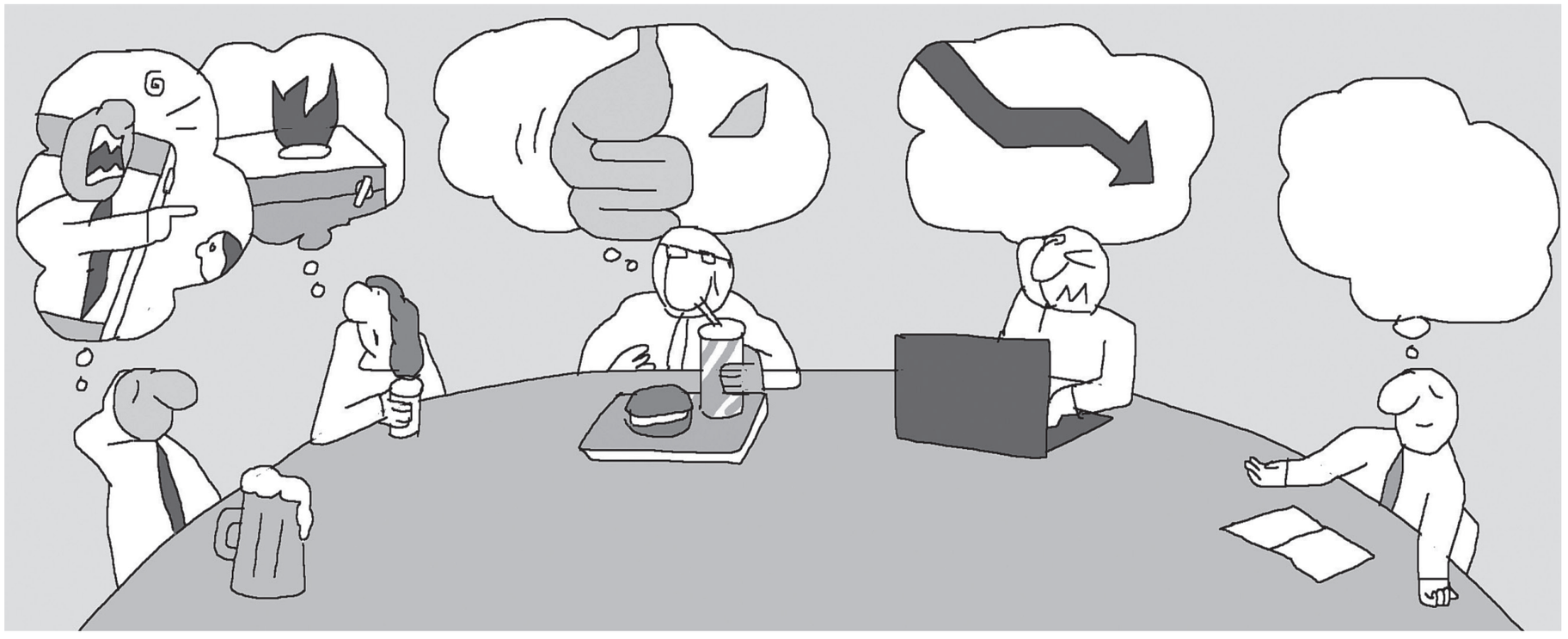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안은 비 오는 날 안개처럼 나직하지만 무겁게 스며든다. 빛을 등지고 불길하고 익숙한 냄새로 다가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포박한다.

'아이를 더 열심히 돌봤어야 했어. 또래에 비해 처지는 것 같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봐. 그 친구 표정이 안 좋았어. 나를 험담하고 다니지 않을까?'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큰 병이라도 걸렸나 봐.'

지난 잘못으로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길함과 상황이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걱정.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불안을 떨쳐내지만, 또 다시 새로운 불안이 찾아든다. 우리 삶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과정의 연속이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빼앗길까봐 더욱 불안하다.

카드게임으로 이슈를 정하는 그룹코칭에서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40대 여성 피코치들의 고백은 끝이 없었다. "저도 그래요" "맞아요"라며 나누는 경험담은, '불길한 생각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였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와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할 때, '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너무 불행해서 숨도 못 쉴 거야'라는 불안감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머릿속을 씻어내고 싶다'고 도리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말도 안 되는 나쁜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두 맞장구를 치면서 근거 없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불안의 순간을 떠올린다.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마음이 어수선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났나? 그 친구는 왜 표정이 언짢았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러면서 곰곰이 대화를 복기합니다. 무슨 말 끝에 뭐라고 대꾸했지? 내 말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더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서 외출할 때 어떤 때는 두 번씩 다시 들어왔다가 갑니다. 가스밸브는 제대로 잠겼는지, 전열기는 껐는지, 현관문은 제대로 닫았는지, 뭔가 마음에 걸리면 나가 있는 동안 극단의 사고까지 생각이 치닫는 거예요. 지금의 일상이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경과민이겠거니 했는데 모두가 수시로 비슷한 불안감에 휩싸인다니 놀라워요."

불안은 진화의 자연선택이다

진화심리학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감정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번식을 위한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불안감 역시 위험에 대처하는 방어용 무기다. 자연선택은 생존을 목적으로 할 뿐,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안녕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의 저명한 진화심리학자인 로버트 라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불안은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자연선택의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종의 환영이다.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필수였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도록 자연선택 되어 있다. 지금은 고대의 프로그래밍이 시작된 수렵채취 생활처럼 다른 구성원의 평가나 인상이 절대적인 시대가 아님에도 우리는 그런 느낌과 인식에 길들여져 있다."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오로지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유리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생존에 유리하도록 오랜 세월 굳어지고 강화되어 왔다. 인류가 문명인으로 산 시간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1년이라고 친다면 문명인의 역사는 단지 2-3시간에 불과하다, 우리의 DNA에 박힌 굳건한 불안감은, 여러 면에서 실제의 결핍이 크게 줄어든 현대에 와서도 여전하며 무한경쟁과 끝없는 욕망의 반대급부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화심리학은 인간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걸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로버트 라이트는 불교 사상을 철학과 심리학으로 접근한 흥미로운 저서 〈불교는 왜 진실인가〉에서 미망(迷妄)의 감정에서 헤어나기 위한 불교의 진단과 처방은 진실에 가까운 것임을 진화론의 렌즈에 비춰 과학적으로 밝힌다. 그는 실질적 방법론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체험한 후 마음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불교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면

인간 감정은 자연선택 결과
불안함도 방어의식의 표현
마음 챙김으로 미망 떨치자

인간에게는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자아, 의식적인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매번 번갈아가며 쇼를 연출하는, 위임받은 다른 자아의 집합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자아의 집합이 쇼를 연출하는 방법은 느낌을 통해서다. 그렇다면 쇼에 변화를 주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느낌이 하는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타당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일상의 삶에서 느낌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좋은 방법인 마음챙김 명상은 그저 자리에 앉아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도록 내버려둔 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저자의 말처럼 붓다가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희노애락은 단지 미망일 뿐이며 내면의 평안을 위해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향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파한 것은 대단한 통찰이며 진실이다.

불안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마음챙김 명상

코칭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데 유효하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가 이슈였던 그룹코칭에서 피코치들은 감정의 경험을 나눈 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졌다.

1. 지금 떠오르는 불안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여기서는 얼굴 표정과 시선의 방향, 몸짓 등 몸의 모든 감각기관을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코치는 가능한 한 사람씩 무대로 불러내어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게 한다.

"내가 집을 비운 동안 아이가 학원에 빠지고 게임하고 있을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쓰여요. 아까부터 전화로 확인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잔소리하면 역효과가 날까봐."

참석자 모두가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주에 새 제품의 광고시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하고 와서 계속 그 불안감이 떠나지 않네요. 내일 돌아가서 끝낼 수 있을지."

"몇 달 전부터 위통이 있어서 내시경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불안해요.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것 같아요."

피코치들은 불안감을 묘사하는 동안 걸어 다니기도 했고 앉아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으며 몸을 떨기도 했다.

2. 두 번째 단계는 매 순간 변하면서 달아나는 마음을 붙잡아 지금 이 순간의 욕구와 감정이 어떤지 집중하는 알아차림이다.

다시 자리에 앉아 가부좌의 자세로 돌아온 후 코치의 리딩에 따라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을 시작한다. 그들은 15분이 지난 후 한 사람씩 자신의 감각을 동원해 마음속 불안의 모습을 묘사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 보입니다. 회색빛으로 마구 헝클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벽에 그려놓은 낙서 같아요."

"불안 덩어리가 내 오른쪽 가슴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찐득찐득한 엿기름 같네요. 손으로 떼어내도 또 그만큼 생겨나요"

"내 마음은 목욕탕 속의 수증기 같네요. 그 속에 내가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3. 또다시 15분 동안 자신이 묘사한 불안감을 좋다, 나쁘다는 판단 없이 바라만 보고 집중한 다음 두렵고 불편한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기로 한다.

"실타래 같은 회색빛 뭉치와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여요."

"납작한 불안 덩어리를 만지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고 있어요."

"나는 수증기 속에서 얼굴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간 그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느끼도록 우리는 명상 코칭을 계속 했다. 피코치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관찰하면서 감각으로 설명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게 되자 구태여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건 단지 지금 몸의 느낌일 뿐이었다. 느낌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받아들이자 불안감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들은 불안에 꽉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둔 채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알아차렸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내면의 평화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변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불안감 역시 순간순간 왔다가 가는 감정의 미망일 뿐이며, 나를 얽매지 않도록 떼어놓을 수 있다는 알아차림의 순간이 오게 되면 마음챙김은 시작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망에 빠져있었으나
이제는 점차 벗어날 때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좇아
지각 있고, 깨어 있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잔간하의 법문 중에서〉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중생 이로우면 나도 이롭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⑤ 무아 · 무상의 이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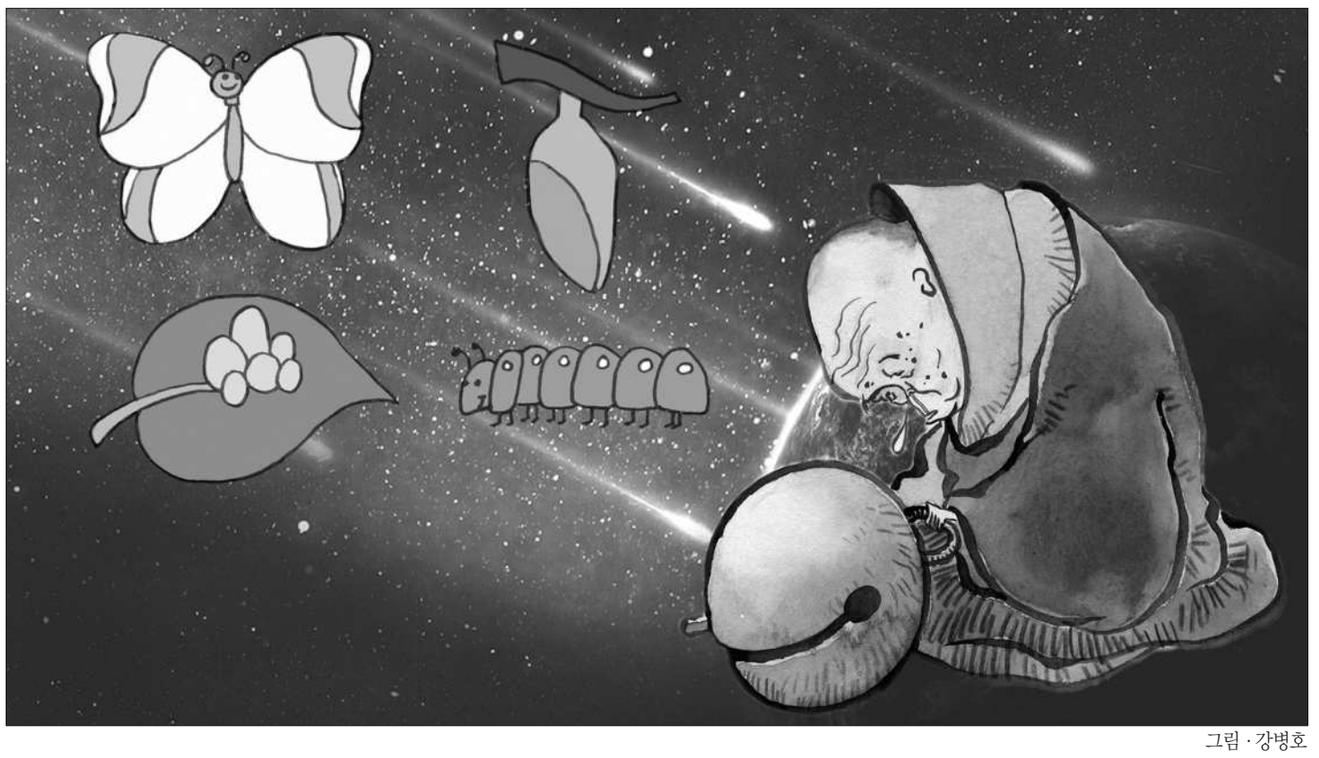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일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암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말기라는 것이다. 평생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나? 억울해서 죽겠다.

생명체는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고 또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원형질과 후형질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질은 중심 부위에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 물질이 있다. 이 생명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신에 도전한 최초의 사람은 다윈이다.

즉 생명의 진화론을 이야기했고 자연도태설과 종의 기원을 이야기했다. 다윈은 생명체는 생물 고유의 특성을 특정지우는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며 다음 대에 물려주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서 · 조화 속에 있는 세포

다윈이 주장한 것을 더욱 깊이 연구한 사람이 멘델이다. 멘델은 그것을 유전자라고 했다. 이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니 나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유전자의 본질을 밝혀낸 사람은 윗슨과 클릭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NA구조를 밝혔다.

DNA구조를 보니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인데 23개의 쌍으로 되어 있다. 남자나 여자나 22개의 쌍은 똑같고 마지막 한 개가 여자는 'XX'고 남자는 'XY'로 한 쌍이 다르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23쌍 염색체 두 개가 결합하는 것이다. 2의 23승개의 가능성을 가지며, 이것을 계산하면 840억 개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합은 840억 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는 부모의 빵틀이다. 다를 것 같은데 전혀 다르지 않다. 생명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세포든지 질서와 조화를 벗어나는 세포는 한 개도 없다. 이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총체로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업이 만들어낸 작용이다.

어떻게 이 몸뚱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끝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많은 세포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것 같지만 한 개라도 자기 멋대로 활동하는 것이 없다. 전부 다 끝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 있을 뿐이다. 질서와 조화가 깨질 때, 만약 세포 하나가 잘 났다고 모든 세포가 일정한 속도로 번식하는데 자기 혼자 빨리 번식하면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된다.

암, 질서와 조화의 파괴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일정한 속도로 번식한다. 그 중 한 세포가 다른 세포보다 훨씬 빨리 번식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없던 덩어리가 생겨서 목구멍을 막으면 식도암이 되고, 폐에 생기면 폐암이 되고, 위에 생기면 위암이 된다. 어디든지 조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바로 암이 되는 것이다.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끝없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한 개라도 깨뜨려지면 그것은 암이 된다.

우리의 정신도 똑같다. 끝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무엇이 하나 허물어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잘못되는 것이 정신병인 것이다. 육체에 생기는 병이 암이라면, 정신에 생기는 것이 정신병이다. 생명체라는 것도 질서와 조화 속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개라도 잘났다고 하면 전부 파멸해 버리는 것이다. 정신이라는 것도 정신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물질 속에서 내 손에 자극을 주면 내가 아픈 것을 느낀다는 점이다. 생명체가 떨어져있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일단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면 자극을 주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태풍이 오고 이상기후가 닥치면 나를 포함한 더 큰 자신이 아픈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플까? 새끼줄로 부모와 자식이 각각 끝부분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다. 자녀보다 더 아픔을 느낀다. 한국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전쟁의 비극으로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낀다. 바로 인류애라든가 동족애와 같은 정신적인 느낌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도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된다. 무아는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내게 손해처럼 보이는 이타행
깨달으면 손해 없음 알게 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성불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

탐 · 진 · 치서 계 · 정 · 혜로 이동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탐 · 진 · 치를 계 · 정 · 혜로써 제거해야 한다. 내가 무아를 인식하고 무상을 인식하면 본질에 접근해가므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유용성은 알지 못했을 때보다 알았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 이처럼 내가 무상과 무아를 느끼면 마치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것과 같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스님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산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은 스님이 가지고 있던 은자를 다 털고 난 다음에는 혹시나 따라올까 봐 스님을 묶어놓았다. 그런데 주변에 묶을 것이 없어서 길가에 있는 긴 풀을 가지고 스님을 묶었다. 스님은 묶여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풀을 끊고 갈 수 있었지만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그대로 묶여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깊은 산속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임금이 사냥을 나왔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 스님이 풀에 묶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있는 것을 본 임금은 신하들에게 어서 스님을 풀어주라고 하고 명령했다. 풀려 나온 스님에게 임금은 물었다. "스님! 왜 뜨거운 햇빛아래 땀을 흘리면서 풀에 묶여 있습니까?"

이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임금님 고맙습니다. 임금님이 저를 풀어주셔서 저도 살리고 저 풀도 살렸습니다. 만약 소승이 힘을 주어 풀을 끊어버리면 풀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풀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땡볕에서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도 그냥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다.

혼란의 척도, 엔트로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갈 때 주어지는 내용은 혼란과 안정이다. 즉 엔트로피와 같은 것이다. 엔트로피 즉 혼란이라는 것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속성은 혼란과 안정이다. 혼란한 상태에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안정해져야만 영생할 수 있고 연속할 수 있다.

우주는 멸망할 수가 없다. 혼자 있는 것은 혼란도가 100이지만 혼자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혼란도가 0이 된다. 이 우주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혼란도를 만드는 것은 내가 선정에 들어 열반적정에 드는 방법뿐이다. 우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잘 못 살면 빵점짜리 인생이 되지만 결혼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점수는 못살아도 60점, 잘 살면 80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 잘하면 100점, 못하면 30점짜리 인생이 된다. 그래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인과와 무아와 무상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없으면 혼자일 때 훨씬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스님은 스스로 묶인 풀을 왜 안 끊었겠는가? 무아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 풀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윤회의 실체

존재가 사라질 때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여 전생(轉生)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나(我)'가 없다는 이야기다. '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윤회가 설명될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잡아함경〉에 윤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윤회를 위해서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영혼과 같은 어떤 것이 반드시 옮겨가야 할 이유는 없다."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옮겨간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윤회란 고정 불변하는 어떤 주체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이생에서 죽어 다음 생에 다른 몸뚱이를 받으면 그 업은 윤회한다는 것이다. 존재 그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것이 바로 윤회이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업과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본체는 없다"고 하셨다. 이 존재가 사는 것은 내가 이생에서 죽고 다른 존재로 계속 태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나비로 비유를 들었다. 나비는 알의 상태로도 있고 애벌레의 상태로도 있고 번데기 상태로도 있는데 결국 알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다. 우리가 볼 때 알과 애벌레는 다르다. 또 애벌레와 번데기도 다르고 번데기하고 나비도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변하지만 알과 나비는 별개가 아닌 것이다.

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 나비가 되고 알이 변해서 나비가 될 뿐이다. 이것은 윤회하는 실체인 '나'가 없는 무아인데도 윤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알은 나비가 되는가? 아니다. 나비알만 나비가 될 뿐이다. 모기알은 나비가 되지 않는다. 결국 나비알은 나비가 되고 모기알은 모기가 된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한다면

왜 무아와 무상을 알아야 되느냐? 무아와 무상을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삶이 이생으로만 끝나겠는가?

만약 윤회를 한다면 이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생에서 몸 받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은 수억 겁이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내 삶은 변하기 시작하여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여기에 불빛이 없으면 어둡다. 불빛이 있으면 밝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 때는 욕심밖에 없지만 알고 나면 바르게 된다.

세세생생 사람 몸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결정이 성불하게 만들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곧 모든 중생이 이로운 것이다. 결국 모든 중생이 이로우면 내가 이로운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보시자, 수자, 시물 모두 청정해야



新 불교사자성어

⑨ 삼륜청정(三輪淸淨)

삼륜청정(三輪淸淨)은 '보시를 하는 사람(施者)' 과 '보시를 받는 사람(受者)',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施物)',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하지 않으면 훌륭한 보시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한 보시에 대한 대승불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시의 대전제를 제시한 사자성어인데, 키포인트는 '청정에 대한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법과 관점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삼륜(三輪)이 청정(淸淨)한 보시인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타인에게 금전이나 물건 등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경제적인 보시(財施, 재시) 외에도 법문이나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보시(法施, 법시),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공포증을 제거해 주는 보시(無畏施, 무외시)를 이야기한다.

또 대승불교에서는 여섯 가지 수행덕목이라고 하여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보시이다. 보시, 희사, 베푸는 것은 이타적 행위로 불도수행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색은 결국 이기주의가 되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 '삼륜청정' 은 단순한 보시보다는 마음이 순수한 보시, 신심(身心)이 하나가 된 보시이다.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라고 하여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보시,' '의식하지 않은 보시' 가 진정한 보시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대체로 남에게 보시, 기증, 희사(喜捨)하고 나서 주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렇다면 그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보시, 불순한 보시로서 청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대부분 소원이나 바람(願), 기대, 혹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얼마 동안은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주상보시' 란 보시했다는 관념을 갖지 말고 공(空)의 관점, 입장에서 보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순수하고 참다운 대승불교적인 보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은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타인에게 금전이나 물질, 또는 어떤 도움을 주고 나서 선행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작은 선행을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는 데 치중한다.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는데,' 또는 '돈을 얼마 주었는데'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준다. 반대급부가 없을 때는 의리가 없다고 비난, 원망하기도 한다. 이런 건 소인이 추구하는 선행이다. 향기 나는 아름다운 보시나 희사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삼륜청정 가운데서 '보시를 받는 자(受者)' 도 받았다는 생각이나 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주상(無住相), 무집착, 즉 공의 관점에서 받으라는 것이다. 보시를 한 사람은 물론이지만, 받은 사람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보시나 도움을 받고 나서도 '감사하다' 는 생각이나 '고맙다' 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 삼륜청정이 시사하는 바는 그래야만 진정한 보시가 된다고 말한다. 공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보시관, 대승불교 수행자들이 수행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보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 물건이 싼 것이든, 보잘 것 없는 것이든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교양, 인격, 예의이다.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은 깨끗해야 한다. 예컨대 사기 친 돈이나 절도한 물건 등을 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부정한 물건을 보시해서는 안 된다.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삼륜청정은 〈화엄경〉, 〈대반야경〉, 그리고 보조국사(普照國師, 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에도 나온다.

〈화엄경(58권)〉에는 "삼륜이 청정한 보시는, 베푼 자와 받은 자, 그리고 보시한 물건을 모두 허공과 같은 것(空)이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三輪淸淨施, 於施者, 受者, 及以施物, 正念觀察 如虛空故)"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반야경〉에는 "보시했다는 생각, 보시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보시의 결과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삼륜청정(三輪淸淨)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마조 '할'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다

〈喝〉



격절록 강설

⑨ 제3칙 백장불자(百丈拂子)

[古則과 着語]

擧, 百丈再參馬祖 (不唧溜漢) 侍立次 祖以目視禪牀角頭拂子 (兩箇一場敗闕) 丈云 "即此用 離此用" (情知泥裏洗土塊) 祖云 "你他後開兩片皮 將何為人" (也要知你落處) 丈取拂子竪起 (蝦跳不出斗) 祖云 "即此用 離此用" (驗人端的處 下口即知音) 丈挂拂子於舊處 (果然只在舊窠窟) 祖便喝 (輪王髻中珠 不可輕分付) 百丈直得三日耳聾 (雖然如是 若不酬價 爭辨真僞)

백장(百丈)이 마조(馬祖)를 재차 참례하고 [멍청한 놈이로군.] 모시고 서 있는데, 마조가 선상 모서리에 있는 불자를 쳐다보았다. [두 노장이 한바탕 낭패로다.]

백장이 말했다.

"이것은 용입니까, 용을 떠난 것입니까(即此用 離此用)?"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장차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위할 것인가?" [역시 (그 말의) 낙처(落處, 핵심)를 알아야 한다.]

백장이 불자를 취해서 세웠다. [새우가 뛰어봤자 두레박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조가 말했다.

"이것은 용인가, 용을 떠난 것인가?" [사람을 시험해 보는 단적인 것은 입을 열 때 바로 소리를 알아버리는 것이다.]

백장이 불자를 원래 있었던 곳에 걸자, [과연! 단지 구태의연한 관념의 틀 속에 있을 뿐이다.]

마조가 바로 "할(喝)!" 했는데, [전륜성왕(輪王)의 상투 속의 구슬은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

백장이 바로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비록 이와 같지만, 만약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찌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겠는가.]

※선문염송집, 경덕전등록 등에서는 본 공안을 마조가 선상 모서리에 있던 불자를 들어 세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용입니까, 용을 떠난 것입니까(即此用 離此用)?"라는 말은 전등록(6권, 홍주 백장산 회해 편)에서는 "다만 이것뿐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只遮箇 更別有)?"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백장불자화' 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으면서도 (앞부분의 내용을) 달리 전하고 있기에-원오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다음 회에 이어지는 평창에서 기술함)- 공안 후미의 '마조의 할' 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한다.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는 사천성 여강에서 대장경을 열람하고, 마조도일에게 참구하여 법을 이었다. 백장고청규(百丈古淸規)를 지어 선이 중국풍토와 생활에 토착화 되는데 기여하였다.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은 남악회양으로부터 법을 이었으며 강서를 중심으로 교화하였다. 호남을 중심으로 교화한 석두희천과 선계의 쌍벽을 이루었으며, 문하에 백장회해, 서당지장, 남전보원, 염관제안, 대매법상, 귀종지상, 분주무업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즉유(唧溜)는 빠르다, 영리하다, 민첩하다의 의미를 갖는다.(唧: 두런거릴 즉 / 溜: 낙숫물 류)

※낙처(落處)는 핵심, 귀착점, 긍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단적(端的)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을 의미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⑨ 믿음 편 9

여러 불보살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에 놀러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대적광전(大寂光殿)' 이라 쓰인 법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여러 불상과 보살상이 모셔져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불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는 석가모니 한분만 신앙하는 종교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대적광전에 모셔진 여러 불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노사나불과 약사여래, 우측에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 총 다섯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법당에 모셔진 불상 가운데 석가모니불 이외에는 모두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들을 협시하고 있는 보살들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교조인 석가모니 이외에도 신앙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과 같은 대승불교 전통에서만 볼 수 있다. 스리랑카나 태국과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들은 오직 석가모니 붓다 한 분만을 신앙하기 때문이다. 신앙대상이 많아진 것은 초기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에 이르러 나타난 현상이다.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 또한 붓다의 친설(親說)이 아니라고 해서 경전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승불교에서는 역사적인 붓다를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즉, 붓다를 진리 그 자체인 법신(法身)과 중생들의 바람에 응하는 보신(報身),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직접 중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온 화신(化身)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를 삼신불(三身佛)이라 한다. 대표적인 법신불로는 비로자나불이 있으며 보신불로는 아미타불과 약사여래, 화신불로는 석가모니불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간적으로 석가모니 붓다 이전에도 수많은 붓다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했다. 이를 과거7불, 혹은 25불 등으로 설명하였고, 미래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역사적인 붓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두루 계신 새로운 붓다로 거듭난 것이다. 이는 초기불교의 일불설(一佛說)이 대승불교에 와서 다불설(多佛說)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붓다를 보좌하는 수많은 보살들을 헤아리면 신앙의 대상은 정말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불설이 등장한 것은 불교가 지니고 있는 성격으로 볼 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승불교의 불성과 여래장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주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존재의 실상을 깨치기만 하면 부처가 되므로 깨친 수만큼의 부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앙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신앙의 대상이 많아진 현상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기불교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실존의 문제를 치유하는 일반병원이라면, 대승불교는 온갖 다양한 병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에 비유할 수 있다.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불교는 어떤 환자라도 수용하는 종합병원이었고, 그 병원에는 질병에 따라 맞춤형 의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중생들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증상에 따라 약사여래를 찾았다. 자비심이 부족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관음보살을 찾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문수보살을 찾았다. 또한 입으로만 말할 뿐 실천이 부족할 때는 보현보살을 찾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미타불께 극락왕생을 빌기도 하였다. 종합병원에 장례식장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생들의 요구로 인해 불교는 다양한 신앙을 수용하게 되었다. 병원이 더욱 커져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허가 제 2017-10호 법인등록 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입종구비서류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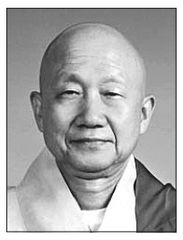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송천동) 천룡사 | 전화 054)823-6777 | HP 010-4053-2722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원융 스님 원적

3월 3일 세수 82세 · 법랍 48년으로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해우당(海牛堂) 원융(圓融) 스님〈사진〉이 3월 3일 오후 10시 20분 해인사 관음전 수좌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82세, 법랍 48년.

원융 스님의 분향소는 해인사 보경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해인총림장으로 진행된다. 스님의 영결식은 3월 7일 오전 10시 보경당서, 다비식은 정오 해인사 연화대서 엄수됐다.

당대의 선지식인 성철 스님을 은사로 197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원융 스님은 1974년부터 해인사 퇴설당 선원에서 12년간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장좌불와를 실천한 수행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93년부터는 해인사 선원장과 해인총림 유나를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는 해인총림 수좌로서 후학들을 제접해 왔다.

원융 스님은 스승 성철 스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으로 평생 선방 시자를 자처하면서 스승의 법문집인 〈본지풍광〉과 〈선문정로〉의 필사를 도왔다. 또한 원융 스님은 〈선림고경총서〉 가운데 〈전심법요〉, 〈임제록〉, 〈조주록〉 번역에 힘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1999년 〈간화선〉을 저술하여 선종돈법(禪宗頓法) 선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 시절에는 손수 편집한 〈서장〉을 교재로 후학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2002년 동안거 해제 후에는 서울 사당동 정안사 묘심선원에서 〈서장〉 강석을 폈고, 2005년 부산 범어사 설선(說禪)대법회에서 4000여 명의 사부대중에게 간화선의 요체를 밝히는 사자후(獅子吼)를 했다. **신성민 기자**

“탄허대선사의 삶 현대인 위한 경책”

2019 정경문학상 수상한 원행 스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
격월간 에세이스트가 선정
시상식 3월 23일 서울시청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어져 역사를 이룹니다. 과거 없는 현재나 현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인연법입니다. 탄허 대선사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현재와 미래의 큰 경책으로 삼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격월간 에세이스트가 2019 정경문학상 수상자로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의 저자 원행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와 〈사랑의 방명록〉의 저자 박석구 작가를 선정했다. 원행 스님은 3월 3일 본지에 저서의 발간 취지를 이 같이 밝힌 뒤 “이 책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자경”이라고 평가했다.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는 원행 스님의 탄허선사 시봉이야기와 10 · 27불교법난 등 우리나라 근현대 100년간의 한국불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책은 탄허 대선사의 일상적 수행의 모습을 가감 없이 소박하게 진술함으로써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간다. 수행자이기 이전에 학자이며 선각자로서의 ‘탄허’를 집중 조명했다.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제1장에서 6장까지는 탄허 대선사의 예언 및 일화, 인연담 등이 소개된다. 이어 7장은 저자 원행 스님이 2016년부터 강원일보와 도민신문에 게재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자는 취지의 청원 글들이 수록돼 있다. 마지막 8장은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엮어진 대담을 실었다.

원행 대종사는 약관의 나이에 월정사로 출가해 탄허 대선사 열반 때까지 20여 년을 시봉했다. 불교종단 분규와 비구 · 대처 불교 분규와 10 · 27 불교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을 겪으며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함께 했다.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이 열반하자 49재를 모신 다음, 가야산 해인사에서 제2의 출가를 했다. 성철 스님 문하에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보았다. 대전 자광사를 중창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동해시 삼화사 주지 소임 때 삼화사 노사나철불을 친견했다. 이후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포교에 힘썼다.

10. 27불교법난 피해자 대표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 뒤 조계종 1012인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바 있다. 저서로는 〈월정사 멍청이〉 〈10.27불교법난〉 〈만화희찬스님 시봉이야기〉 등이 있다.

2019 정경문학상 시상식은 3월 23일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MOU

용인 법륜사–용인동부경찰서 손잡아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와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3월 6일 법륜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용인지역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륜사는 경찰관 초청 템플스테이와 워크숍 장소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법사학인 정진 발원”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환영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3월 3일 동국대 법학관에서 제28기 신입생 입학 환영법회를 개최했다. 환영법회에는 2019학년도 신입생 100명 중 서울지역 거주자 70여 명이 동참했으며, 법사학인으로서의 청규 서약과 발원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법사교육에 대한 정진 자세를 다지는 한편, 학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이웃에 전한 불교계 情

응공조계종, 지역에 라면 100박스 지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3월 4일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아름다운 이웃돕기 물품기탁’을 명목으로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원 홍원 스님, 수덕 스님, 사무총장 지암 스님, 관음사 일각 스님, 대월사 원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성공시기도 공부해 찾는다”

소재학 교수, 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개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노력이 부족했는지, 운이 나빴는지 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과 ‘어떻게’ 뿐만 아니라 ‘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동국대 학술관에서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을 개강한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 교수〈사진〉는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이 같이 밝히며, ‘때’에 대한 분석으로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지난 3월 6일 GFCA동양미래예측학 제8기 최고위과정을, 3월 11일 GFCA풍수지리(+관사) 제5기 최고위과정을 개강했다.

소 교수는 “초보자도 1년을 공부하면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신을 비롯해 주위의 진로선택 등 상담을 해줄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학문을 마스터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수강 가능하다”고 최고위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소 교수에 따르면 최고위과정 수료 시에는 동국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GFCA워장 명의 수료증,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로적성상담사 또는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불자들 기도원력, 뜻깊은 회향으로”

불자들과 가사공양비 1억원 기탁한 원경 스님



“햇수로 10년간 전국의 불자님들과 다라니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달 기도 회향을 앞두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불자님들 요청에 가사공양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껏 이어온 기도 원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 사찰을 돌며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해온 ‘원경 스님과 함께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순례회’가 스님들을 위한 가사불사 기금 1억원을 3월 4일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순례회를 이끈 원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 사진)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사공양의 공덕을 10년간 함께해 온 불자들에게 돌리며 말머리를 풀었다.

순례회는 원경 스님이 제천 덕주사 주지를 지내며 처음 시작했다. 당시에는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 사찰이 많지 않았고, 원경 스님은 불자들이 기도 원력을 갖고 사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님은 순례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나 덕주사 주지 소임을 마치면서 그간 인연이 닿은 불자들과 매월 전국 사찰을 돌며 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올렸다. 순례에는 덕주사 신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좋아하는 전국 불자들이 함께했다.

“평균적으로 한 회에 160~180명의 불자님들이 참여합니다. 대다라니 108독을 하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것 같아 좋다고 하더군요. 대다라니 108독을 할 여력이 없는 작은 사찰 주지 스님들은 신도들을 저희 순례에 다녀오라고 권유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을 대다라니 기도로 하나가 됐다. 각자의 재적사찰보다는 모두가 같은 곳에서 기도를 올리는 데 의미를 두기 시작했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1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그리고 오랜 인연을 가사불사로 회향하고자 뜻을 모았다.

“사실 순례회에서 따로 회비를 모아두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식대와 버스대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거든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불사 기금이 잘 모일지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께서 많은 정성을 모아주셔서 여러 스님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원경 스님은 이제 대다라니 108순례회 회향 이후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33관음성지가 있습니다. 대다라니 기도 회향 이후 얼마나 많은 불자님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사찰들을 참배하며 신심을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윤호섭 기자**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易理作名法(503쪽) | 40,000원
著者 : 孫中山(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스님 판매특가 : 25,000원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여 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저자의 역리 작명법은 다른 작명법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 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습니다.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10-9391-5699
입금계좌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손상용(예금주)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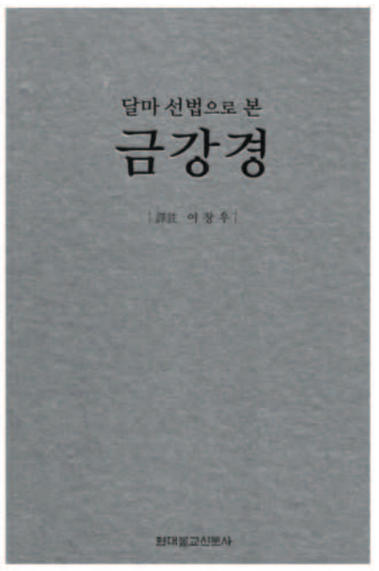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中, 포탈라궁 장서 보존에 거액 투자

10년간 500억 원 규모… 복원 · 전시 등도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의 겨울 궁전인 포탈라궁에 수장된 불교문헌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중국의 '신화통신' 은 중국정부가 포탈라궁의 장서 보존을 위해 향후 10년간 3억 위안(한화 약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포탈라궁은 7세기경 티베트의 왕 송짼감뽀(Songtsen Gampo)가 라싸의 중심부에 있는 마르뽀리(Marpo ri)산에 처음 세워져, 17세기에 5대 달라이라마가 증축했다. 이후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이자 사원으로 티베트 불교의 중심이 됐다. 1994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번 보존계획은 중국 국가문물관리국의 관리 하에 장서들의 훼손예방, 복원, 디지털 보존, 전시 등 다방면으로 진행된다. 포탈라궁에는 주로 불교문헌을 중심으로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한문, 만주어, 몽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약 4만여 권의 고대문헌들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국 측은 "이 계획은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후대에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며 지난 2018년 11월부터 계획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티베트 자치구 문화유산국은 관련학자들과 연구원들을 조직해 고대문헌 보호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국정부는 국가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탈라궁 장서 보존계획을 승인했다.

관리국은 "장서들은 크게 불교문헌, 의학, 역사, 문학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2018년 11월부터 계획 시작
고대문헌 4만 권 전수조사
2800권 디지털 등록 작업도
국가 프로젝트로 보존 추진

대략적인 분류와 장서고의 규모에 대한 사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조사의 첫 단계는 오는 3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포탈라궁의 장서 가운데는 12세기에 파괴된 인도의 날란다 사원의 필사본이 일부 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13대 달라이라마가 전 러시아 황실에 선물한 불교문헌들 가운데엔 산스크리트어로 필사된 〈유가사지론〉 패엽경의 일부가 러시아 도서관에서 발견된 적 있어 화제가 됐다.


포탈라궁에 보관된 대장경을 살펴보는 스님. 사진출처=신화통신

그러나 지금까지 포탈라궁 장서의 전체 규모가 조사된 적은 없었다. 또한 문화대혁명 당시 많은 문헌들이 훼손되거나 유실됐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분류됐던 목록들에서 이탈된 문헌들이나, 완본으로 전하지 못하는 서적까지 포함하면 전체 장서는 4만여 권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획에 참여한 티베트 고대문헌 전문가인 페르돈 박사는 "이러한 희귀 고문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과 이것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라며 이번 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2,800권의 고대문헌들은 훼손예방을 위한 보호조치와 복원을 마친 후 디지털 등록이 실시된다. 문헌과 함께 관련된 불상과 회화, 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학계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그동안 흩어진 채로 보존되던 고대 불교문헌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에 생활불교 뿌리 내리길"

스리랑카 반트 스님, 초원마을서 명상수업 열어

캐나다의 한 대초원 마을에서 '생활불교' 를 가르치는 스리랑카 승려가 화제다.

반트(Bhante) 스님은 서스캐처원주(州)의 새스커툰 근교 코먼파크에서 명상 · 카르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월 5일 C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반트 스님은 2년 전 미국 스톤브리지의 부처명상센터(Buddha Meditation Centre)에서 불교 교육을 시작, 이후 현재의 코먼파크로 옮겨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주말에는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명상 수련회를 열고 마음챙김명상을 진행한다. 서스캐처원대학교에서 매주 명상 수업도 연다.

반트 스님은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불교의 이런 면을 깨닫지 못했다"며 "스리랑카에서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도록 돕고 '카르마(業)' '윤회' 와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새스커툰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종교' 로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쳤지만, 캐나다에서는 일종의 '정신적 치료 방법' 의 일환으로 불교를 전파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트 스님은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명상으로 마음 속 불안을 해소한다. 나는 불교의 이런 면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람들은 단지 나와 함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처님 가르침의 효과"라고 웃어보였다.


캐나다 초원마을에서 생활불교를 가르치는 반트 스님. 사진출처=CTV뉴스

이어 반트 스님은 "스리랑카에서는 1000여 명의 스님들과 불교 교육을 연구했다. 내 은사는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길 원했다"며 "그의 놀라운 생각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트 스님은 '불교 공동체' 는 작지만 '명상 공동체' 는 거대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서양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공동체는 매우 적다. 금전적으로도 부족하다"며 "하지만 서양인들이 겪는 육체적 · 정신적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내면은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더 많은 휴식 필요"

올해 84세로 피로감 호소
최근 들어 해외방문 지양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직접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망명 티베트 언론 '파율' 과 티베트망명정부는 달라이라마의 발표를 대서특필했다.

달라이라마는 2월 27일,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남갤사원서 봉행된 장수기원 기도법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장수기원 기도법회는 티베트망명정부 교육부를 비롯한 4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기원하며 봉행됐고, 전 망명정부 총리 삼동 린포체가 법주로 진행했다.

달라이라마는 법회를 마친 후 진행된 연설에서 "주최 측과 티베트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깊은 헌신을 바쳐왔다. 사제 간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이 기도가 분명히 성취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법회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장수기원법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들이 달라이라마에게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이어서 달라이라마는 "역대 달라이라마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1대 달라이라마께선 84세에 입적하셨다. 올해 내 나이가 그와 같다. 앞으로 내가 더 장수하길 바란다면, 또 건강하게 지내며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휴식을 취하며 공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지난여름 라닥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자신의 건강과 장수에 관한 성명서를 반복하며 "달라이라마 제도는 티베트인들의 필요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내 건강에 자신이 있고,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파율' 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의 정체성과 동일시돼 왔기에 달라이라마의 건강은 지난 10년간 큰 논쟁거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강화되는 중국의 티베트불교 탄압의 배경에는 차기 달라이라마의 선출에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냐는 추측이 망명 티베트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달라이라마는 건강문제를 사유로 직접적인 해외방문을 자양하고 있으며, 화상회의나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해외의 신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실제 2017년에는 일본방문을 한 해 연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베트남의 불교신자들을 위해 화상회의로 대화를 진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大, 불교 살리기 위한 '분투'

신입생 늘리려 SNS 강화 · 실용 교육 시스템 도입

일본 오사카 남부의 와카야마현 내 한 사립 불교대학이 급감하는 신입생 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 과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가 3월 5일 보도했다.

고야산대학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고야산대학은 진언종의 창시자인 일본 헤이안시대의 승려 코보 다이시 쿠카이(Kobo Daishi Kukai)가 816년 설립한 불교 대학에서 근원한다. 해당 학교는 현재까지 쿠카이 스님의 교육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전통성을 표방하던 이곳에서 '엄격한' 교육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탈피,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SNS 포교 도입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생성된 해당 대학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일상 모습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학생들의 등교용인 800m 높이의 케이블카, 지도 스님과 함께 장난치는 모습 등 친근한 사진이 공개된다.

또 전공과목에 불교학뿐만 아니라 불교 복지,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등을 창설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오사카 시내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직장인을 위한 특별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부디스트도어는 "고야산 대학은 2020년부터 다른 대학과 연계해 쿠카이의 철학을 기반으로 교육 저변을 넓힐 방침"이라며 "농업 등 실용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 당국과 협약도 맺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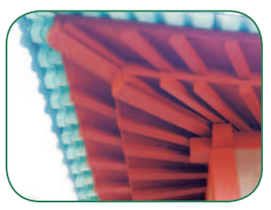
이는 급감하는 신입생 수와 불교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류닌 인위(Ryunin Inui) 총장은 "1980년만 해도 매해 50명이 넘는 승려가 졸업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천년의 보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명상의 기본 '제3자적 시점 유지'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⑤ 세번째 워밍업 2



모호함 유발 주제, 건강 · 일 · 가족

소주 석 잔이면 숨이 가빠지는 사내가 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 석 잔을 털어 넣은 그의 몸은 곧 저승사자의 발소리인지 심장 박동인지 모를 몸속 소음을 듣게 된다. 그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사내의 술잔을 뒤집는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 따위도 붉은 신호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내는 별 흐트러짐이 없다. 말도 또박또박 잘 하고, 잘 듣고, 실없이 웃거나 실없는 말을 흘리지도 않는다. 사내 입장에서는 지금 운전대를 잡아도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입술 사이에 음주 측정기를 꽂아 "후우" 불어도 '이상 무'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현상과 정신 사이의 모호함이 사내의 내면에서 급속 팽창 중이다.

놀랍게도 사내의 서재, 책상에는 항상 술병이 있다. 그것도 양주나 고량주 같은, 성냥불만 켜면 투명한 불꽃이 일어나는 독주다. 지금도 200㎖짜리 백자에 담긴 '귀주 마오타이'가 목에 붉은 리본을 달고 있다. 중국 다녀온 후배가 6개월 전에 선물한 술이다.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으니, 향후 6개월은 너끈할 터. 사내는 그것을 가끔 홀짝 거린다. 낯빛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미량이지만, 한순간 수천 개의 바늘이 목구멍을 찔러대며 식도를 불태우고, 위장을 향해 앰뷸런스가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도 홀짝대고, 그래서 홀짝댄다. 왜? 당신은 이 약골 사내의 외로운 음주가 어쩐지 공감되지 않는가. 공감되는 분은 스스로를 잘 살피시라. 혹시 나도 모호함을 즐기는 사람이 아닐까. 취한 것도,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 말이다.

우리는 지금 글쓰기명상의 세 번째 워밍업 중에서 '건강' '일' '가족'이라는 항목을 살피고 있다. 내 안에서 건강은 무엇이고, 일은 무엇이며, 가족은 또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는 어쩌면 저 사내의 책상에 놓인 '53도짜리 마오타이'를 닮았다. 찌릿찌릿한 알콜성 전율을 통해 몸 감각을 통째로 들깨웠다가 어느 순간, 모호한 의식 속으로 빠뜨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건강은 나의 존재성을 만들어 주는 핵심적 수단이자 동력 자체다. 일(직업)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이다. 가족은 강력한 연기적 실체로서, 나의 실존을 옹위하는 수단이자 본질 같다. '수단'이라는 어휘를 '독주'나 '마오타이'로 바꿔도 뭐, 이상할 것 있는가.

그런데 나만 그럴까. 건강이나 일, 가족을 사유해보면 다양한 색깔의 굴을 지날 때처럼 감정의 스펙트럼이 번다해진다. 이 주제들은 나의 존재 기반이자 이유로는 찬란하지만, 석 잔 이상의 일, 석 잔 이상의 가족, 석 잔 이상의 건강은 아, 그만 내려놓고 싶기도 하다. 소주 석 잔에 온 존재가 그만 붉은 신호등이 되고 마는 사내의 내면 소음처럼 지겹고, 불길하고, 슬프거나 아릿한 감성들이 쿵쾅댄다. 그런데 마음을 한판 더 뒤집는 요소가 있다. 세상의 언어들이다. 글쎄, 지겹고, 불길하고, 슬프고, 아릿한 그것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란다. 너무 원초적인 정서여서 떼려야 뗄 수 없단다.

우리는 대체로 이런 모호함 혹은, 애매함 속에서 일생을 헤엄치는 물고기 같은 존재 아닐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함의 바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마음. 눈뜨고 잠든 물고기처럼 '말똥말똥 모호하게' 지나치고 싶은 대상들. '건강, 일, 가족!' 절간의 나무 물고기처럼 누군가 두들겨주면 둔탁하고 퉁명스레 깨어났다가 즉시 '모호함' 속으로 잠수 타고 싶은 주제라고나 할까.

인도 힌두부터 서양심리학까지
수천 년 이야기 간직한 '명상'
유사명상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알아차림 잊지 않는 게 중요

생애 내면검색 – 가족

38. '가족' 하면 문득 연상되는 영상이나 생각, 동물, 자연현상을 표현한다면?

39. 나는 언제, 어느 순간에 가족이 나와 깊게 연관돼 있다고 느끼는가.

40.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먼저 떠오르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본다면(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인상착의나 관계 등으로 서술)?

41. 가족은 나에게 ( )이다.

42. 가족 중 누구하고든 대화할 때 내가 가장 잘하는 말은?

43. 가족과 나 사이에 발생한 극적인 사건을 떠오르는 대로 적는다면?

44. 지금의 내가 부모, 형제, 친지 등에서 다른 이름을 부르며 단어 카드를 뽑아준다면?

평생 어려운 과제, 언어 · 신념 · 죽음

불교경전을 기록한 빠알리어에는 사띠(sati)라는 용어가 있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기억하다'로 풀이되는 이 낱말은 현대 심리학의 상위인지(matacognition)라는 개념과 맥락이 닿는다. 정신통합의 창시자 아사지올리(Assagioli)는 자기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 기제를 '탈 동일시(disidentification)'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셀프 카메라처럼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는 상태나 능력'이라는 뜻이다.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인 MBSR의 창안자 존 카밧진(Jon kabat-Zinn)은 탈 동일시 기제를 활용하여 명상이 여러 심인성 질환 치료에 유의미함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불교학자, 심리학자, 의학자들이 초기불교의 사띠 개념을 풀어서 '유사 의미, 다른 표현'들을 양산함으로써 논문도 쓰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있다.

명상(meditation)은 위와 같은 개념과 언어와 내용을 한마디로 평정하는 낱말이다. 명상은, 인도의 힌두 시절부터 서양심리학까지 수천 년 동안 마음에 관한 스토리를 한 단어에 뭉뚱그리다 보니 온갖 명상 테크닉을 끌어안게 된 '피곤한 대지의 여신' 같은 용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명상 지도자를 처음 만날 때, 잘 만나야 한다. 나중에 차츰 이야기 되겠지만 처음부터 향기로운 이미지에 들뜨게 하고, 환상에 젖게 하는 지도자는 스파이처럼 영민하게 째려봐야한다. 아무튼, 밤문화, 식사문화, 여행문화, 숲문화라는 복합어가 그렇듯 명상 또한 유사한 품성으로 새로운 어휘를 수용하고 생산한다. 잠명상, 설거지명상, 걷기명상, 대화명상, 식사명상, 심지어는 싸움명상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명상을 간단히 풀면, 나에 대한 제3자적 시점 유지다. 그것이 전부다. 제3자적 관점에 학문의 자켓을 걸치면? 탈 동일시, 거리두기, 마음챙김(mindfulness), 탈 중심화, 자기수용 따위, 그럴싸한 학술어로 탈바꿈한다. 명상은 눈을 감든 뜨든, 그것이 결정변수는 아니다. 자신의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즉 '몸과 마음'을 옆집 아저씨처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끝이다. 서양의 명상법은 정말이지, 여기까지다. 그러나 불교 명상은 얘기가 다르다. 거기에는 계율과 수행법이 있다. 이 차이는 간단치 않지만 안심하시라. 당신은 본격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 말이다. 우선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 사띠하는 연습, 알아차림 하는 연습만으로도 호흡이 가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만난 기념으로 아래 주제들에 대한 내면 드러내기를 해보자.

생애 내면검색 – 언어

45. 최근, 나의 내면에 자주 떠오르는 말이나 표현은?

46.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나 표현은?

47. 들으면 번번이 부정적 상태가 되는 말이나 표현은?

48. 최근 내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나 간투사는?

49. 최근 들어 우연찮게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은?

50. 말로 인해 상처 받았던 기억 베스트 5 (구어체로 적음)

51. 말로 인해 위로 받거나 기쁨에 겨웠던 기억 베스트 5 (상동)

52.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장 용서해줄 것 같은 말이나 표현은?

53. 친구나 동료들 속에서 내가 말하는 모습을 글로 그려보기.

생애 내면검색 – 관념, 신념, 가치관

54. 사는 동안 나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일, 베스트 3은?

55. 배우자나 연인이 나에게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56. 내 자녀가 나에게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57. 형제들이 나에게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58. 자녀에게 부모가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59. 친구가 나에게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60. 직장이나 사회가 나에게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61. 국가가 나를 위해 지켜줘야 할 일 3가지는?

생애 내면검색 – 죽음

62. 나의 죽음을 한 마디로 규정하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63. 하루에 몇 번쯤 나의 죽음을 바라보거나 의식하는가.

64.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가.

65. 나의 죽음 직전 60분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한다면?

66. 죽음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나 연인, 자녀, 형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67. 지금 이것 때문에 죽기 싫다면, 이것은 무엇이지?

68. 죽음에 이르러 가장 어리석었다고 뉘우칠 만한 일은?

69. 나의 죽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대행 스님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촛불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올해 설날에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선원의 촛불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뭔가 모르게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과 달리 설날에 그렇게 촛불 의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선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새해맞이 촛불재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래 안다면 아마 전자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방편을 일러 주시고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모르니까 염불도 있어야 했고, 그 옛날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재 법과 예전 법이 둘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는 아니 되죠.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이는 물질의 촛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마음이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 마음이 밝아 있지 않다면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아지면 그 마음도 밝아진다는 얘깁니다.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그것은 자연히 되어 있는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밝아지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도,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건도 있죠.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고요. 대신 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식구들이 오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음이니까 대신하지, 뭐.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유위법이나 무위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에 의해서, 밝은 지혜 물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뿌리가 깊게 밝아 있으니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들고 켜고 하는 것이 방편이라고 하지만은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안된다거나 또는 본인 자신도 어쩌지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것도 다 업식으로 인한 거니까 본인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서 간절히 관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본인이 부득이 못하게 되면 부모라도 대신해 주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전달로 지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각자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내가 한 것만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두움을 없애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뿌리가 밝아지도록 발원하는 방편이자 진실한 의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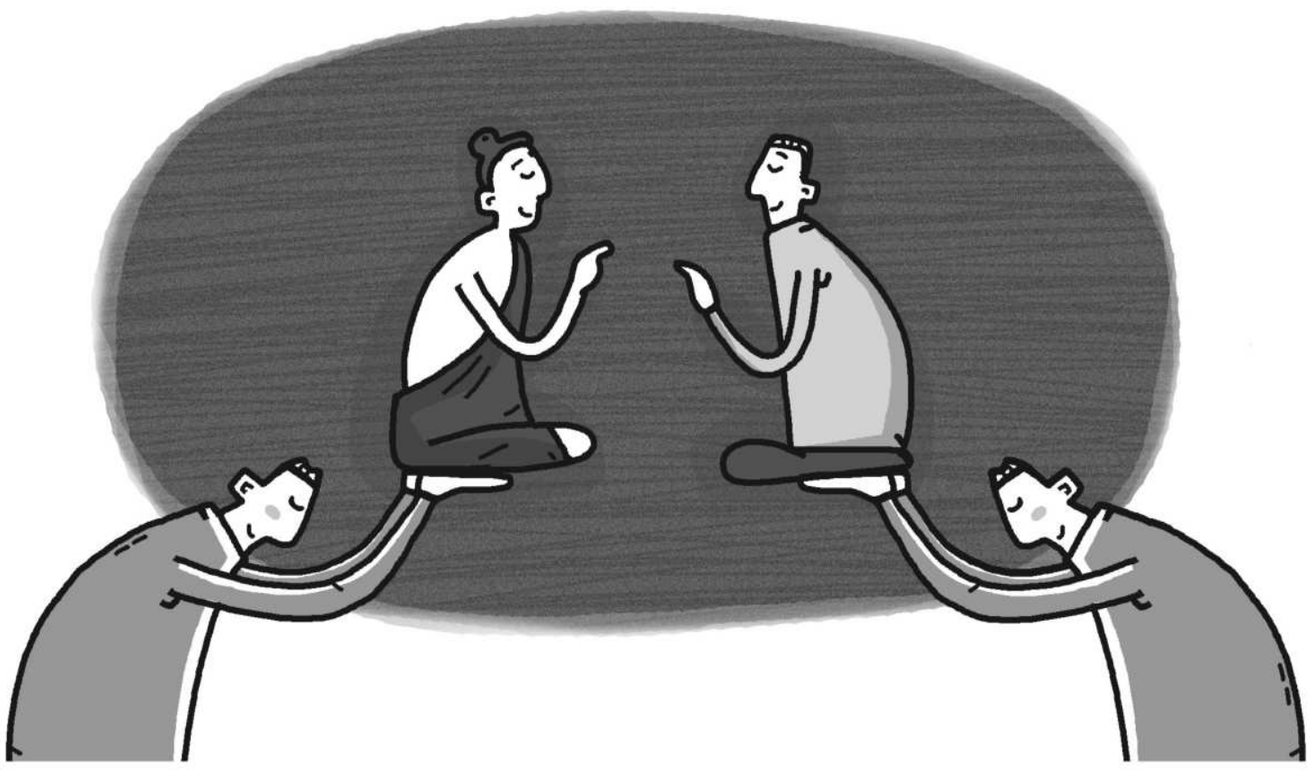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직 부자 상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큰스님께서는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랫동안 마음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자 상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답변: 우리가 제일, 여러 마디 하는 거보다도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는 거다 이겁니다.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떠나서 자기 선장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잔잔하든 파도가 치든, 양면을 다 놓고 그 선장한테 맡겨 놓는다 이겁니다. 만날 한 말이지마는 거기에 닿지 않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의 선장. 우리는 그냥 마음이지만 그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선장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배 뒤집힐까 봐 막 그냥 야단법석을 하면은 그 선장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배가 뒤집히죠. 그와 같이 우리 몸뚱이를 배로 비유를 했다면 그렇단 얘깁니다. 선장이 자기를 끌고, 지금 선장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그런다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데가 있느냐? 못났든 잘났든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너만이 너를 믿을 수가 있잖아!" 자불이 모두 있다고 그런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을 데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밥 먹어 줄 수 없고 잠자 줄 수 없고, 아파 줄 수 없고 죽어 줄 수 없고 깨달아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놈을 믿어야 할지 믿는 걸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 자불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불로 인해서 수없는 제불이 다 이렇게 찰나찰나 엮어지니깐요. 그리고 통신이 되니까요. 그리고 항상 들고 나고 하시거든요, 그 자불 주인공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인공, 주인공" 그러는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고생은 해도 죽는 거 못 봤죠? 아주 끄트머리의 결과는 회향을 잘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안으로 열심히 관하면서 자기가 실천에 옮기고 자기가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 보다 보면 차차차차 그게 경험이 되고 그래서 깨쳐진단 말입니다. '아, 이럭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선 좇아가니까 어떤 게 닥쳐와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아, 바로 이게 반야줄이구나!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 그 미세한 그 티끌 수와 같은 세계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수천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한 찰나입니다. 요기서 조기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 이 육체가 새 둥우리라고 합시다. 새 둥우리 속에 새가 들어 있다. 이 몸이 형성됐으니깐 그 속에 자불이 들어 있는 거지, 지붕도 안 해 놓고 부처님 모시는 거 봤습니까? 다 집을 마련해 놓고 자불을 거기다 모시는 거죠. 자불은 영원한 겁니다, 자기의. 여러분들의 자불은 다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죠. "벌레 하나도 살생하지 마라." 이랬고요. "그것도 네 생명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서 공부하는 거지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치는 체가 있어야 되는데 체가 없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도 공식으로서 그냥 넣으세요

☞ A17면에서 계속

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곤욕을 치른다거나 또 차례차례로…. 곤욕을 치르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테니깐 말이에요. 그거를 또 한 번 벗어나려고 한다면 무척 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하고 깨치지 못했다, 즉 말하자면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끔 상봉을 했다 이러지 않아도 내가 자꾸 한군데다가 몰두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굴려 놔라 이겁니다. 이 '법륜을 굴린다' 하는 것도 바로 이게 이렇게 굴리는 게 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굴려서 놓으면 그것이 인제 깨치지 않았어도 그것이 직통, 즉 말하자면 찰나에 그,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그 입력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질문: 건강검진 표가 나와서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관한다고 하는데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일체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누구나가 다 주인이 있다면 심부름시키는 제 시자를 그렇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자기 주인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분인데 병원에서 폐암이라고 그래서 죽게 됐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더 넓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아팠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조바심을 냈는데 인제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수술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죽으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더 간절히 주인공한테 관하고 오직 거기만 믿고는 기운이 없으면 찹쌀 물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냥 물처럼 마시고 어디가 쑤시면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한 컵씩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보약을 한 재씩 지어서 때로는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죽으나 사나 그냥 놔뒀다는거죠. 근데 지금 건강해서 잘 다닙니다. 그러니깐 모두 각자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습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칠십이 채 못 된 어떤 노인네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도무지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돼서.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소?" 이러니까 "수술을 하면 뭘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그걸 없애고 지금은 편안히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버리니깐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데도 믿지 못하면 힘이 드는 겁니다. 당신들 속에 주인공이 다 있다고 해도 나를 큰스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같지만 불성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깐 수만 명이 한데 합치면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걱정들을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진짜로 믿을 생각을 하고 믿는 반면에 에너지는 그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불성은 다 똑같으니까 한데로 모아지면 큰 에너지가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안 쓸 때는 딱 펴지고 또 모아서 쓰고 이러는 거죠, 그거 뭐. 그래서 모두가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통의 길을, 정통의 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진짜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의 불성이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생명의 근본인 것이지요. 우리가 작용해서 대치를 하려니까 주인공이라고 해야죠. 내 속의 의식들도 다 한마음이 돼 줘야만이 아픈 데도 파워를 일으키지 않고 화합이 돼서 아프지 않게 되는 거지, 간의 생명들이 싸움을 해서 죽으면 다 굳어지고 그래서 그게 간암이 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고 호응을 하는데 어떻게 간암이 됩니까?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싸움을 해서 모두 한쪽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싸움을 안 하면은 죽지를 않죠.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왔다 하는 것도 있지마는 안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생기는 것도 너 나를 따져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 백혈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바깥에서도 세균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싸우는 게 있고요. 그러면 내 편을 다 만든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선 싸우게 되면 그거는 단박 그냥 순식간에 살이 굳어져 들어가니까 병자가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이 다섯 가지가 주둔합니다. 다섯 가지가 주둔해서 모두 과거에 자기가 벌여 놨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 돈이 드니 못합니까, 힘이 드니 못합니까? 수억겁을 거쳐서 자기를 이끌고 나온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웃고 사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질문: 제게는 두 딸이 있는데 자식들과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긋나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웃고 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도움 말씀 청합니다.

> 남을 내 생명같이 아끼고
>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 그 모두를 둘 아니게 보시라.

답변: '자기가 없다' 는 뜻을 아십니까?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하나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없어서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했다고 하죠. "우주 삼세가 그대로 공해서 문이 없도다." 하는 셈이나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유를 따지고, 속으로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는 거는 아예 공부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겁을 거치면서 우리가 형성되고 진화되고 이러는 데다가 그렇게 해 가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 내려왔는데 그것이 전부 악이라고 그렇게 배척하면 나도 배척이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네가 잘못하면 너도 그렇게 받는다." 이런 뜻이 뭐냐 하면, '남을 죽이면은 죽임을 받는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게. 일로 가면 일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내 생명같이 아끼고 또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그 모두를 다 둘 아니게 보시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환이고 싸움이 생기질 않고 화목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하고도 아주 극난히 언짢았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그러면 그 마음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자식 살아나가기가 참 힘드는 집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거는 둘 아니게 그렇게 조상들도 다, 둘 아니게 자꾸자꾸 자기를 거쳐서 그 공부를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은 다 화평해지고 또 돈도 한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서 돈도 생기고 살기가 점점 피어지죠. 마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지 않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슬기롭고 웃고 살게 되는 그러한 가정이 모두 돼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질문: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나 스님을 만나면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욕심이나 집착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혼돈스럽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이나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자기 자신이 없다면 모두가 없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라도,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만나서 내가 좋게 해 주면 다 좋은 겁니다. 다 언짢은 게 아닙니다. 그래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도 공식으로서 그냥 넣으세요. 공용으로 그냥 넣으세요, 둘 아니게. 넣으시고선 속으로 그냥 관하시고 좋게 말하고, 그냥 좋게, 그 상대가 좋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말해 주고 끝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피하실 것이 없죠.

그런다면 언제 어느 천 년에 이 세상에,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물체도, 이 산사의 목신도, 또 땅의 지신도, 또 물의 수신도, 용신 말입니다, 모든 거를 어떻게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인연을 지으세요, 좋은 인연으로서.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사시게 되실 겁니다. 항상 무겁지 않게 사세요.

남편이 너무 미워요

질문: 제가 자꾸 바가지 긁는다고 툭하면 이혼하자는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제가 괜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남편이 친구 보증 섰다가 말아먹고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 그런 건데 말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주인공도 불러 보지만 미운 마음이 가시질 않아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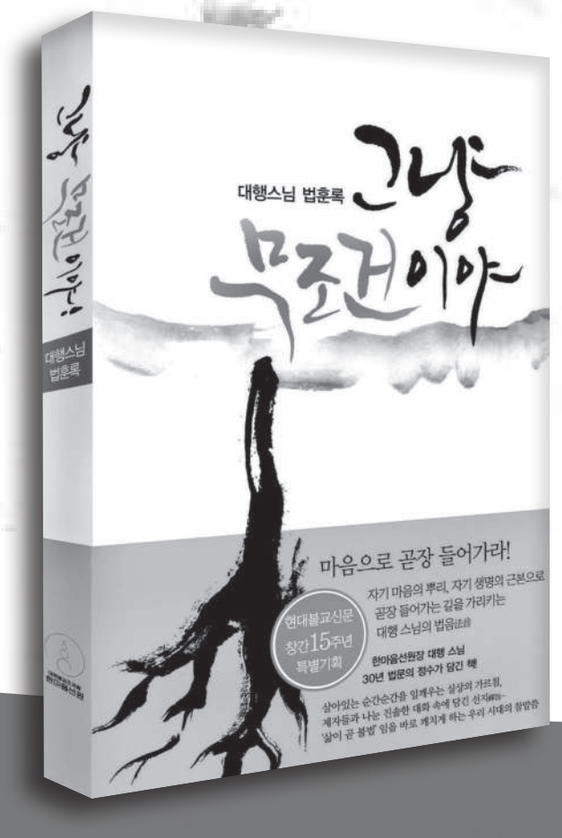
답변: 우리는 그냥 공생, 공심, 공체 · 공용 · 공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 보살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혼을 한다 뭐, 같이 또 사랑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고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다 벌겨 놓고 뭐, 죽겠다느니 살겠다느니 하거든요. 다 잘못해서 다 그냥 홀랑 다 까 버리고선 자기는 살지 못한다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무슨 일입니까. 과거로부터 내가 그렇게 쌓아 올리고 차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대로 그대로거든요.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떠한 자리를 봐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물건을 우리가 할 것인지, 이 물건은 어느 자리에다 해야 좋을지. 시대는 어떠한지, 또 내가 돈을 꾸어서 해도 되는지, 꾸지 않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생각해서 정해야 될 것을, 용도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자라서 보(保)나 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 선 걸로 인해서 다 날리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자기도 고생 식구도 고생 남도 고생,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한 몸에, 한 몸 가운데 그 깊고 깊은 내 마음 그 속에, 여의봉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주장자죠. 주장자에다 다 놓고 이러면 정수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자기가 입력한 거만치 나오거든요. "스님, 나는 주인공 이름을, 아니 주인공을 자꾸 불렀는데 어찌 안 됩니까?" 이름만 불렀지 진실히 통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남을 흉본다거나 잘못한다고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하고, 작고 큰 것이 둘이 아닌 이상, 또는 잘하고 못하고가 둘이 아닌 이상 잘하는 것도 법이요, 못하는 것도 법이니까 모든 걸 침착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고, 또는 모르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거를 모르면 그저 자꾸 마음 내서 일러 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배움입니다. 남을 헐뜯을 게 하나도 없죠. 자기가 수없이 그 사람도 됐다가 나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미생물도 됐다가…,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요.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통일 해법, '중도·화쟁'에 있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3.1운동 100주년 희소식 기대한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로 끝나
그래도 희망을… 성찰의 계기 돼야

정·반·합으로 발전한다는 '변증법'
통일 위한 진테제 도출 노력 있었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긴장·갈등 과정
통일문화 구축위한 노력 이어져야

양자택일 극복할 때 역사는 발전했다
슴 위한 에너지, 화쟁과 중도에 담겨

하노이에서 열린 비핵화 북미회담의 결렬을 보면서 실망과 황망함이 겹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물꼬가 될 희소식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삼 우리의 못남에 서글픔이 몰려온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지금도 분단 극복의 탈출구를 외세에 기댈 수밖에 없으니 이를 어쩌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싶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은 변증법을 통해 세계는 나선형으로 진보된다고 보았다. 변증법은 정(正)·반(反)·합(合)의 논리이다. 헤겔에 따르면 변증법은 진리 탐구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도 적용한다.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형태의 사회가 제안되고, 결국에는 양자의 모순을 극복하는 합(合)의 형태로서 진테제(synthesis)로서의 이상 사회가 제안된다.

변증법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자기수정과 열린 마음, 그리고 도전 정신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단극복과 통일 문제에 진테제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이 있었던가? 지금도 한국사회에서는 정과 반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남남갈등이 극심하고 아직 진테제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있다.

오랫동안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명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세대도 늘어 가고 있다. 통일은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일은 상이한 이념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이 뒤섞이는 과정이고, 구성원들의 경제적 기반이 재편되고 이익이 충돌되는 과정이고, 정치권력의 통합으로 권력의 속성상 어느 영역보다도 많은 긴장이 유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통일이라는 사건은 한반도의 민족에게 많은 갈등상황과 긴장을 불러올 것이다. 통일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개인 존재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민족 스스로의 자기통제감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자발적, 창조적 에너지의 창출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통일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분단 극복과 통일 문제는 정치와 통치 행위로서 존재해 왔다. 그래서 남북화해와 통일 문제는 중요한 정쟁의 단골 메뉴였다.

반면 밑으로부터의 통일문화 창조의 노력은 매우 빈약하였다. 통일문화는 민족 화해의 배를 띠우는 강이다. 여기에 남북문제의 가치론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나온다. 통일은 물리적 고정태가 아니라 통합의 과정이라는 역동적인 체계이다. 남북한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문제 등 통일한국의 좌표와 과제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은 통일문화 창조의 토대이다.

합(合)으로 향하는 헤겔 변증법의 진테제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자산인 화쟁사상 안에 이미 나타나 있다.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은 양자택일을 극복할 때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효의 화쟁사상이고 이것은 붓다의 중도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화쟁사상은 한국 불교의 위기 시에 정혜쌍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남북화해와 통일의 창조적 에너지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붓다의 중도사상과 화쟁사상에서 실천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불교의 책무가 크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공회전을 줄여주세요

따스한 봄이 오면 차창을 열고 봄바람을 한껏 들이키면서 길을 달리고 싶다. 훈훈한 봄바람에 꽃향기가 묻어온다면 얼마나 향긋할까? 그러나 마음까지 간질이는 이 기분 좋은 상상을 단숨에 깨어버리는 것이 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다. 봄만 되면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하루에도 몇 번씩 초미세먼지 수치가 우리들을 위협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3월 5일 오전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를 넘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고령층들은 집안에 갇히다시피 한다.

요즘 같은 때, 도심을 달리다 차 안의 답답한 공기를 바꿔보려고 창문을 열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창문을 열면 차 안의 초미세먼지는 약 130배, 미세먼지는 약 90배까지 농도가 올라가 버린다.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자동차 생태 변경에 따른 미세먼지 유입 측정' 이라는 실험결과다. 이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믿고 있던 행동이 이제는 바보스럽고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도심의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황사나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도심의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이 주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이런 정책은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회전 줄이기다. 추운 날에 히터를 켜기 위해, 혹은 신호 대기 중일 때, 우리는 누구나 공회전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쌀쌀한 날씨에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아침마다 출발 전 공회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자동차 공회전 시에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온도가 낮아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의 효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려서 주행 시와 비교하면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로 더 많이 배출된다. 언제 어디서든 공회전을 삼가야겠지만 특히 지하 주차장같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그렇게 배출된 매연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이며, 그 피해자들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공회전 줄이기 외에도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운전습관들이 있다. 경제속도(60~80km) 준수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신호 대기 시 기어 중립하기, 관성 주행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회전을 줄이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국 7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행동이 되어 버렸다. 가끔은 이대로 가다가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래의 지구인처럼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물을 사 먹는 것처럼,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오기 전에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라도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봄날이다.

社 說

종단 관리감독 체계성 강화해야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의 기금 관리 행태가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과 조계종총본산성역화불사 지정기탁금 등을 부설법인인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계좌로 관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과 산하 사단법인인 지혜로운여성은 동일시 되다시피 한 운영을 해왔다. 이로 인해 엄연히 분리되는 단체, 특히 설립 주체단체와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임에도 상하의 구분없이 운영되어 왔다. 불교여성개발원장에 대한 미임명 사태로 불거진 개발원장 공석과 지혜로운여성 만의 단독 이사장 선출로 두 단체의 행보는 갈리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불교계 포교, 신도단체들은 세금 혜택과 기금 안정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기금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엄연히 두 단체는 다른 단체이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

포교원 측은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이 사태발생 전에는 원만한 관계였고, 그런 관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종무지도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포교원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뢰와 믿음은 제도와 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진 뒤에 쌓아 올려야 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조계종의 각 단체와 산하 법인간의 관계, 그리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종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미 발생한 문제는 수습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종단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다행히 종단 측에서 포교단체와 산하 법인의 관리에 대한 종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니 환영할 일이다. 종단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포교단체의 신뢰성 회복이 이어지길 바란다.

2019년 출가·열반재일에 부쳐

사월 초파일로 대표되는 부처님오신 날을 비롯해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을 불자들은 '불교 4대명절' 이라고 말한다. 특히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은 시기가 1주일 사이여서 정진 주간을 선포하고 수행을 독려한다.

올해에도 적지 않은 사찰들이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계사의 경우 3월 7일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 승보공양 헌공의식을 봉행하고 출가열반정진 주간을 선포했다.

조계사는 3월 14~21일 오전 10시 법회를 열고 경전 독송, 참선, 108참회를 진행한다. 또한 오후에는 요가강좌에 이어 108염주 만들며 108배하기,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도사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통도사는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기도를 실시한다. 또한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삼보일배 수행정진도 진행된다고 한다.

현재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한다. 반면, 싯다르타 태자가 무상함을 인지하고 출가하고, 정각을 이룬 후 열반한 날을 크게 기리지는 않는 분위기다. 주요 본사 중에서 출가열반재일에 별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사찰도 적지 않았다.

깨달음을 발심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싯다르타 태자의 원력, 그리고 성도와 전법 끝에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정은 부처님의 출생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견성성불과 자리이타의 모든 것을 보이신 부처님처럼 우리 불자들도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수행해보자. 일선 사찰들 역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405-9402 영주지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구지사 : (053)768-8008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❶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❷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❸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4:21 PM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19.01.16 수요일
소중한 생명에게는 푸른 새싹이 자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소외된 임산부에게는 소중한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화장실서 출산 후 아이 방치..숨 거두자 검은 봉투에 넣어 유기 2018년 11월 23일 | 전북 익산
건물 뒤편 공터에서 미숙아로 보이는 영아 시신이 발견 2018년 8월 28일 | 광주 광산구
냉장고에서 영아 시체 2구 발견 2018년 | 부산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몸도… 마음도… 수행도…

'마음쉼터를 가다'

② 춘천 제따와나선원

사람은 누구나 번뇌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하지만 번뇌라는 것이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끄달리게 되곤한다. 벗어나려는 마음 그 자체가 번뇌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지친 2월 22일이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머리 속에는 맡은 일로 가득차 있고, 여기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얻기를 바랐다. 잠에서 깨자마자 옷가지를 챙겨넣고 길을 떠났다.

차의 내비게이션에 찍힌 곳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제따와나선원. 다소 생소한 말인 제따와나(Jetavana)지만 이 곳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기간 머무르며 수행하신 기원정사의 빨리어 이름이었다. 번뇌를 떨치는 방법을 대중에게 알린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 재현

제따와나선원은 사성제와 팔정도 수행도량을 표방하는 곳으로 중도 수행을 알리는 곳이다. 선원장 일묵 스님은 지난해 10월 14일 개원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지혜로운 수행센터, 자애와 연민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수행센터, 승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청정한 수행 공동체를 지향하며 초기 경전에 근거한 수행법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제따와나 선원은 부처님 당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이름을 가져온 만큼 선원 외양도 부처님 당시 사원의 외관과 흡사했다. 인도 기원정사와 나란다 대학 등을 모티브로 벽돌로 만든 건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제따와나란 이름은 부처님 당시의 근본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수행하는 대중의 지향을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곳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찰 형태를 고민하다, 벽돌만이 남아있는 기원정사의 모습을 보고 선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제따와나 선원에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공수해 온 붉은 벽돌 40만장이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벽돌이 아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든 울퉁불퉁한 벽돌이다. 여기에는 보시된 불자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쓰여 있었다.

전통 사찰 양식은 오히려 수행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제따와나 선원은 사성제 등 불교 가르침을 담되 전통양식을 변형하여 이를 표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따와나 선원을 보면 3개 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량은 일주문을 지나면 첫째 계단에는 종무소, 공양간, 신도숙소, 명상실 등의 건물이 나오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스님들이 머무르는 요사채가 보였다. 세 번째 계단을 오르면 법당과 주수행처인 선방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제따와나선원의 건물 배치는 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과 가까워 진다는 의미를 지니는 듯했다. 법당과 선방까지 가는 길은 한번에 가지 않도록 했다. 여러차례 굽이진 길을 통해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여기에 선원 부지 내에는 보통의 전통사찰에 있는 탑이나 석등 같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 어디에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했다.

정혜쌍수 의미 담긴 가람

선방 실내는 더욱 특이했다. 한마디로 '보던' 이었다. 사찰에서는 흔한 탱화나 단청 등 장식이 전혀 없었다. 연등조차 사각등으로 만들어 천정 외곽에 넣은 모습이었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카페나 미술관에 와있는 착각마저 들었다. B2면에 계속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제따와나 선원서 초심자들이 행선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 고치현 순례 사찰 (상)
B4 책세상 — 〈업의 그릇을 비워라〉
B5 문화 — '제5회 불교무용대전(BDF), 지평을 넘어'
B6 학술 — 본래 '한 쌍' 협시불, 과학 연구로 찾다

‘중도’로 회통하는 선교일치 현장







춘천 제따와나 선원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법회가 있고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는 일요법회가 있다. 또한 매주 일주일 집중수행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주말 집중 수행이 열린다. 일년 내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 머물면서 중도수행, 안거, 집중수행, 명상, 자율수행을 할 수 있다. 초기불교대학에서는 1학년 공덕과정, 2학년 교학과정, 3학년 수행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춘천 제따와나선원’

B1면에서 계속

불상 마저도 깔끔했다. 금박을 입히지 않고 청동만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을 형상화했다.

“제따와나 선원의 가람배치는 사성제에 근간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문의 경우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집멸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일주문 기둥은 괴로움이며, 네 번째 기둥은 진리입니다. 괴로움을 던지고 행복을 얻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중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종무소 건물도 사성제의 고를 상징하고, 신도숙소와 요사채는 집, 선방과 법당은 멸, 그리고 부처님 자리는 도를 의미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법당까지 이르는 길은 팔정도로 수행을 통해 열반을 증득한다는 상징입니다.”

선원을 찾은 일행을 맞은 일묵 스님은 가람 배치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전통사찰에서 대웅전의 위치에 있는 선방과 법당에 대해서는 교학과 수행을 함께 닦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층의 법당은 교학을 배우고, 2층의 선방에서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행처에서는 교학이 없이 바로 수행을 하게 되죠. 교학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행으로 인한 마음씀을 다시 실천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죠. 이는 선교일치, 정혜쌍수의 불교 가르침을 실현코자 함입니다. 배움과 수행, 그리고 실천으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이 같은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선원을 바라보니 구조 하나 하나 마다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사찰 대부분이 기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중심이 되는 대웅전이 가운데 서고 이를 위시한 각종 전각이 일주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을 장엄하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제따와나 선원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외부구조를 보면 단을 상징하는 법당에 부처님을 모셨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높은 단이나 장식이 없이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일단 법당과 선방에 들어서면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수행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초기불교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이런 구조로 법당이 되어 있습니다.”

실참 수행에 최적화된 구조

이날은 초심자 수행이 열린 날이었다. 20여 명의 초심자들은 총무 월명 스님의 지도 하에 호흡법의 기초를 배우고 행선으로 사성제 수행을 시작했다. 각 단으로 구성된 선원의 구조는 걷기명상을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었다. 계단의 양 옆으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수행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첫 발을 디뎠다.

한발 한발 발끝의 감각에 집중하라는 스님의 말에 조용히 벽돌바닥을 딛는 발에 집중하자 금새 머리 속의 망념이 사라져갔다. 각 단마다 평평한 구조는 걸음 자체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만들었다. 하지만 잠시 눈 내린 곳을 밟거나 새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곳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집중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주변의 혼란한 상황에 갔다가 다시 고요한 상태로 오는 것을 반복하는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체화하고 나중에 반조하여 떠올려보세요.”

일묵 스님은 “자기가 수행을 했을 때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의 수행은 잡념이 일어났을 때 삼매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억하는 사띠 과정이다. 반조를 통해 사띠로 원인을 찾아 다음에도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에서 온 강신구 씨(36)는 “회사에 다니며 명상책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명상 공부를 했는데, 이 곳을 알게 되어 처음 오게 됐다”며 “불교명상, 그리고 수행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제따와나선원 전경.

교학 바탕, 수행 · 실천

초기불교대학 통해 교육

중도 중심 수행체계

정견으로 수행 방향 지도



선방 내부 모습.

10년 정도 라오스 등에서 수행 한 임연옥 씨(56)는 “다른 사찰의 경우에는 좌선 위주인데, 제따와나 선원은 다양하게 수행을 할 수 있어 좋다”며 “특히 행선을 위해 가람 바깥의 구조도 신경을 쓴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초기불교 전법사 된 성철 스님 손상좌

이처럼 제따와나 선원이 안팎으로 교학과 수행에 맞는 구조를 띄게 된 것은 우리나라 초기불교의 1세대 격인 일묵 스님의 영향이 컸다.

일묵 스님은 1996년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 중 성철 스님을 시봉한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한국선불교의 대표적인 스님의 손상좌가 초기불교를 알리는 스님 중 한명이 된 것이 아이러니했다.

스님은 미얀마에 가 파욱국제수행센터에서 수행했다. 틱낫한 스님이 있는 플럼 빌리지, 태국 등을 거쳐 스님 만의 체계를 구축했다. 결론은 사성제와 팔정도였다.

현재 제따와나선원에서는 초기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초기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학체계와 중도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체계가 양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초기불교 수행처가 아닌 초기불교를 배우고, 익혀, 다시 대승불교로 실천하는 방법까지 함께 익힐 수 있다.

“나중에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풀이하는 연구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당시 가르침과 현재 사회의 모습, 그리고 현대인들의 생활 속 실천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를 중도로 회통해 함께 풀어내고 싶습니다.”

중도 수행은 정견에서 시작

일묵 스님은 팔정도가 들어 있으면 불교수행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교수행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기불교의 수행도 방편일 뿐 그 핵심은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임을 강조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많은 명상법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견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당시 가르침이 무엇이고 이로인한 수행법이 무엇이 있고, 현재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법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결국 스승이 지도를 해줘야 한다. 일대일의 지도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을 법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따와나 선원의 수행과정 중에는 매일 수행법담 과정이 있다. 수행 중 느끼는 경계에 대해 스님과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자리다.

“요즘 사람들은 일단 체계적인 교육에 매우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작정 믿으라는 것 보다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믿음과 수행원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학력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짙어집니다. 결국 우리네 스님들이 이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설명하여 신심까지 이끄는 방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팔정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당시 고학력자들, 체계적인 학습에 익숙한 이들을 위해 정립해놓은 불교사상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포교의 방안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동체에서 학습과 수행을 널리 펴는 리더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처님 당시 가르침에 근간해 팔정도와 사성제 수행을 널리 펴는 이들을 배출해 한국불교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따와나 선원을 돌아 나오는 길, 선원에 모인 초심자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 기원정사를 찾은 대중들의 얼굴이 이랬을까 생각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강남불교대학
4월 신입생 모집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들을 치유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사찰은 인생을 치유하는곳이 되어야 하며 스님은 인생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 이런 스님은 도전해보세요 ···

1.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2. 불공이나 제사로 사찰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3. 삿된 행위(부적이나 점)로 포교하고 싶지 않다.

응시자격
- 승려(종단불문)
- 승려가 되고 싶은 분(나이, 성별 불문)
- 고등학교 졸업자

특혜
- 라이프닥터 자격증 취득(민간 등록 자격증)
- 승적 취득 가능(종교법인 참종)
- 사찰 등록 가능(종교법인 참종)

수업안내
- 1학기에 6개월
- 총 8학기 4년 과정
- 주 1회 수업

모집정원
지도자 과정 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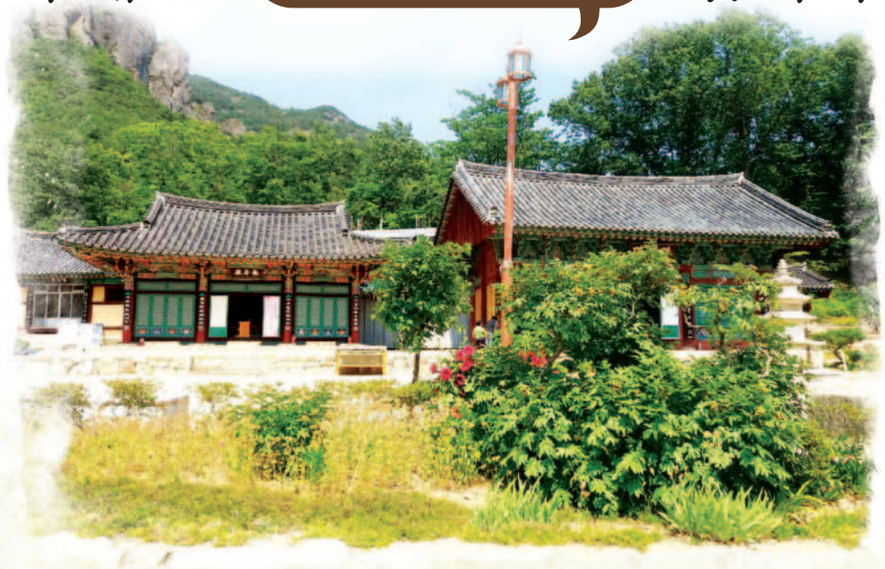
개강
4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학비
학비는 학기 당 50만원

입학신청은 홈페이지 www.gangnambu.org 지도자 과정의 입학신청 메뉴에서

문의 02-532-0012 | www.gangnambu.org YouTube 채널 | 강남불교대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14 2층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푸른’ 생명력 지닌 고찰 만나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⑯ 고치현 순례 사찰 (상)



시코쿠 순례 31번 사찰 치쿠린지 본당의 모습. 본존은 문수보살이다.



31번 치쿠린지 산문. 녹음이 우거진 모습에서 생명력이 넘쳐난다.

이른 아침의 서늘한 냉기에 등이 시려 일어났다. 유리문 밖으로 나란히 서있는 무덤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죽은 자들의 옆에서 일어나는 산 자라니, 참 재미있는 경험이다. 잠시 무덤가로 걸어 나가 주변을 둘러 봤다. 아침 이슬로 묘비들이 반들거리는 것을 보려니 순간 티베트의 스승, 뒤좀 린포체의 고사가 생각났다.

뒤좀 린포체가 프랑스로 설법을 위해 왔을 때의 일이다. 뒤좀 린포체와 시자 스님이 프랑스의 마을길을 지나다가 공동묘지를 보았다. 대리석에 조각을 해서 아름답게 만든 묘비들을 보곤 시자가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군요. 죽은 이들을 위해 저렇게 공을 들여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다니요. 죽은 이들은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집 안에서 자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공들여 꾸미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러자 뒤좀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꾸미지 않느냐? 우리는 저기 누워 있는 이들의 과거이니라. 살아있는 시체들이지. 하루하루 죽어가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어리석게도 크고 아름다운 집을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무상을 깨닫기 위해 죽음을 관상하는 것은 동서양 모든 종교 전통의 공통점이다. 가톨릭 수도원 묘지에는 ‘오늘은 나, 내일은 너(Hodie mihi, Cras tibi)’라는 경구로 산 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순례길을 걷다보면 수많은 무덤들과 만나게 된다. 이렇게 공동묘지에 모인 무덤들 말고도 길가에 아무렇게나 서있는 무덤들도 많다. 오래돼서 다 닳은 묘비들을 읽어보면 근래 19~20세기에서 400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가는 무덤들이다. 길가에 서있는 무덤들은 대부분이 지쳐 쓰러진 순례자들의 무덤이다.

순례자가 길에서 죽게 되면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매장했다고 전한다. 짐에서 돈 몇 푼이라도 나오면 묘비를 세웠지만, 그조차 없으면 지팡이를 꽂아 묘비를 대신했다고 전한다. 그러니 1200년이 넘어가는 이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러져 갔는지 짐작할 수 없다.

순례자의 복장으로 수의인 흰옷과 묘비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걸으면서도 몸이 피곤하다고, 날이 좋지 않다고, 길이 험하다고 등의 핑계에 사로잡혀 순례자가 가져야 할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무상의 가르침, 단지 이번 생만을 위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묘지를 바라본다.

아침 냉기에 으슬으슬한 몸을 문지르며 다시 숙소로 들어간다. 침낭을 말아 넣고, 배낭을 다 싸고도 시간이 좀 남았기에 불단을 정리하기로 한다. 화병의 꽃이 다 시들어 있었기에 꽃만 새로 꽂고 나가려다가 결국 대청소가 되어 버렸다.

물티슈를 꺼내서 불단을 전체적으로 닦고서 중앙에 모셔진 코보대사상을 보니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질 않았는지 시커먼 먼지며 녹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더러워져 있는 불상을 보노라니 오래 전 구법승들에 관련된 이야기에 “길에서 탑묘와 불상을 보면 반드시 쓸고 닦은 뒤 예경하며 발원하였다”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던 것이 기억났다.

시코쿠 순례길에 만나는 수많은 탑과 불상을 모두 깨끗이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마음을 낸 이 순간만큼은 정성을 다하기로 했다. 적어도 내가 지난밤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또 일어나자마자 무상에 대해 마음을 낼 수 있는 이 숙소에 대한 보은으로 불단을 청소하자고 마음먹었다.

불단을 치우고선 다시 숙소를 여기저기 치우니 거의 한 시간 반이 지났다. 너무 시간을 지체해도 오늘의 순례에 지장이 있기에 불단에 마지막으로 향을 올렸다.

“오늘도 힘내서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번 사찰 코쿠분지(國分寺)는 젠콘야도에서 4km 정도. 1시간 정도면 넉넉히 도착하는 거리다. 어젯밤 얼음물로 족욕을 해서인지 발이 탄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 40분 만에 코쿠분지에 도착했다. 하늘이 영 흐려서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코쿠분지는 앞의 현인 도쿠시마에도 있지만, 이곳 고치현에도 있다. 8세기경 나라시대의 쇼무천황은 일본의 각 ‘쿠니(國)’에 사찰을 하나씩 세울 것을 발원했다. ‘쿠니’란 우리말로는 ‘나라’라는 뜻이지만, 일본에선 현재의 ‘현(県)’에 해당한다.

길가의 이름 모를 순례자 무덤들
무상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켜
순례 사찰 중 가장 아름다운 31번
‘푸름’ 가득… 문수보살의 가피도

쇼무천황의 명에 의해 각 쿠니에는 각각 비구스님들의 도량인 코쿠분지(國分寺)와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인 코쿠분니지(國分尼寺)가 세워졌다. 이곳 고치현의 코쿠분지는 741년 백제계의 후예인 쿄키 스님이 세웠다. 이후 한 때 사세가 기울었으나 코보대사가 중창하여 지금에 이른다.

굵은 나무들이 곳곳에 서있어 마치 숲속에 들어 온 듯한 느낌이 나는 도량이다. 본당은 16세기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코쿠분지가 처음 세워졌던 시대의 건물은 그대로 모사해서 지었기에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한다.

촛대와 향로를 보니 아직 아무도 올리질 않았다. 오늘의 첫 공양을 올린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들여서 불을 붙였다. 예불을 다 올리고 다음 사찰로 향하려고 보니 단체 버스가 한 대 주차장에 들어온다.

새하얀 옷을 입은 단체순례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오는 산문을 조금 빗겨나가 순례길에 들어선다. 제30번 젠라쿠지(善樂寺)로 향하는 길은 논 사이로 나있다. 논두렁을 걸어가다 보니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이정표를 찾아 두리번거려도 길이 보이질 않는다. 왔던 길을 조금 되돌아가다 보니 풀숲 속에 반쯤 썩은 나무 이정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도와 썩은 이정표를 집어가며 논길을 벗어나니 아침이슬에 바짓단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차도 옆으로 난 인도를 따라 고갯길을 하나 넘어가니 제30번 젠라쿠지에 도착했다. 제30번 젠라쿠지는 원래 사찰이 순례지가 아니라, 바로 옆의 토사신사(土佐神社)와 함께 붙어있었다. 그러다보니 메이지 시대에 신불분리령에 의해 사찰을 분해하여 고치 시내로 옮아가 안라쿠지(安樂寺)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원래의 자리엔 빈터만 남게 되었다. 후에 새롭게 사찰을 세우고 시코쿠 순례의 순례지가 된 것이 지금의 30번 젠라쿠지이다.

몇 십 년 전까지는 이러한 역사적 문제로 고치시내의 안라쿠지와 현재의 젠라쿠지간에 어느 곳이 30번 순례지인가에 대한 문제가 복잡했었다. 법정 공방까지 간 끝에 젠라쿠지가 30번 순례지, 안라쿠지는 오쿠노인으로 남게 되었다.

납경소에서 납경을 받고 나오니 비가 한 두 방울씩 떨어진다. 우비를 꺼내 입을까 하다가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하고 출발한다. 비가 차라리 올 것이면 시원하게 내리면 좋은데 부슬부슬 왔다 그쳤다 하니 영 신경이 거슬린다. 그냥 맞고 걷기로 하고 터벅터벅 걸어간다.

31번 치쿠린지(竹林寺)가 있는 등산로로 들어가기 직전의 큰 길을 지나는데 전차길 옆의 술집에서 아저씨 한 분이 맨발로 뛰어 나온다.

“오헨로상! 쉬었다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곤 들어오라며 환영하는 덕에 얼떨떨하게 시원한 보리차를 얻어 마셨다. 덕분에 젖은 백의도 선풍기 바람에 조금 말릴 수 있었다. 주인아저씨의 말로는 젊어서 오토바이로 일본 일주를 한 끝에 이곳이 제일 좋아 가게를 차렸다고 했다.

“시코쿠를 일주할 때는 나도 88개소를 순례했어요. 순례자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

아저씨는 출출할 때 먹으라며 술안주로 나오는 과자를 한 움큼 쥐어 줬다. 오늘도 감사한 보시를 받는구나 생각하며 가방에 집어넣었다.

31번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정집 사이로 난 좁은 샛길이었다. 거기에 엄청난 경사에 그저 땅만 바라보며 오르다 보니 탁 트인 장소가 나왔다. 31번 사찰 옆에 있는 식물원인 마키노식물원이다.

순례길이 식물원 부지 안을 통해 가기에 “순례하시는 분들 중 식물원을 관람하시려는 분은 입장권을 구매해 달라”는 안내판이 순례길 옆에 세워져 있었다.

울타리를 건너 식물원 안으로 들어서니 가로등이나 계단 여기저기에 이정표가 붙어있다. 이정표를 따라 식물원 정문을 통해 나가니 바로 앞에 31번 산문이 나타났다.

시코쿠 88개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 어디냐고 질문을 받으면 나는 주저 없이 31번을 말한다. 31번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푸름’이다. 식물원이 옆에 있기도 하지만, 사찰의 정원도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찰 전체가 푸른 생명력이 가득하다. 날이 개어 푸른 하늘이 보이는 치쿠린지는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문수보살을 모시는 치쿠린지는 일본 3대 문수도량의 한 곳으로, 코쿠분지를 세운 쇼무천황이 꿈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이곳을 찾아내 도량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후에 코보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며 중창하였고, 17세기 이후로는 고치현에서 학문의 중심지로 유명했다.

〈자유기고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6~3/1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용성 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8	달라이 라마의 입보리행론 강의	달라이 라마/이종복	불광출판사
4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선승들의 일화 301)	최성현	불광출판사	9	금강경삼가해	전재강	운주사
5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10	밀교 진언수행 이야기	최종웅	올리브그린

“많이 웃자, 웃는 것도 업그릇 비우는 것”



업의 그릇을 비워라
무명 지음/쌤앤 파커스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업의 그릇 비우면 마음에 복이 채워져
꽉 막힌 마음 뚫어줄 명쾌한 생활법문
번뇌가 병 만들고 욕심이 병 키우고
어리석음이 업의 그릇 짓는 원인 된다

“누구에게나 생은 고단하고 힘들죠. 왜 그럴까요? 살면서 욕심으로 채운 업의 그릇을 완전히 비우지 못해서입니다. 그로인한 업장이 마음의 병이 되어 결국 육신의 병으로 이어는 것이죠.”

BTN불교TV서 불자들의 꽉막힌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법문’으로 유명한 ‘힐링 전법사’ 무명 스님이 〈업의 그릇을 비워라〉라는 책을 통해 ‘업을 말끔히 씻어내는 법’을 알려준다. 책이 출간된지는 100일 정도 지났지만, 교보문고서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비롯해 여전히 상위권을 고수하며 스테디 셀러로서의 시동을 걸고 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 회주인 무명 스님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BTN불교TV서 ‘그대는 알겠는가?’라는 주제로 현대인이 겪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불자를 대상으로 명법문을 펼쳤다. 스님은 이 자리서 고민으로 가득한 현대인들의 꽉 막힌 마음을 성찰 깊은 법문으로 해결해 주었다. 이 책은 그 법문들 중에서 가려 뽑아 불자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모아서 펴낸 것이다.

누구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업을 짓는다. 그리고 그 업들이 어떤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실이다. 행복의 수레는 누가 대신 끌어주지 않듯이,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자신이 지워야만 하고, 그 인연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무명 스님은 마음의 병이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욕망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해져야 업의 그릇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올라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출발할 때는 가벼운데 등성이를 오르면 오를수록 힘들어 지지요? 육신은 힘들지만, 정신과 마음은 정상이 다가올수록 성취감에 도취돼 기분이 좋아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죽겠다’는 반대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끊임없는 인내 과정이니까 무척 힘들죠. 힘든만큼 좋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업이고, 좋아짐을 느끼는 것은 비로소 그 업이 비워지는 순간입니다.”

무명 스님은 이십대 때 양친을 모두 잃었다. 청년 가장이 된 그는 어린 동생들의 양육과 어려운 생활고를 겪었지만, 갖은 고생 끝에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세월이 흐른 후 뒤돌아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묏자리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고 짐이 되었다. 어머니의 유골을 물 맑은 강가에 흩뿌리고 돈과 재물 그리고 욕망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수행하면서 살고 싶어서 늦은 나이로 출가를 했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40대 후반에 뒤늦게 출가한 무명 스님은 전남 순천 선암사서 용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출가 후 7년 동안 곳곳을 만행하다가, 14년 전 산 깊고 물 맑은 부산 금정산 기슭에 바람만 막을 수 있는 움막 법당을 짓고 업으로 인해 자신처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수행 정진해 수행처로 유명한 무명사라는 기도 도량을 조성했다. 20여 년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행자로 살면서 인간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지은 과거세와 현세의 업에 의해서 미래의 삶이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업으로 쌓인 마음의 번뇌와 때를 기도로써 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법이죠. 업을 없애려면 진정한 참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병도 마음의 업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행복은 바로 이 업의 그릇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명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병이 있다고. 하나는 마음의 병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따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육신의 병으로 옮겨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기도할 때는 ‘무조건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법이죠. 자비와 사랑이 동반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는 ‘회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는 의미죠. 불교의 최대 이념인 자비와 사랑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담긴 회향의 마음으로 한다면 당연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무명 스님은 지난해 12월 22일 무명사 회룡선원에서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행복나눔’을 창립했다. 대승보살 정신과 자비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무명 스님은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춥고 배고픈 혹독한 가난을 몸소 체험했지요. 그래서 남이 어렵다는 말만 들으면 항상 돕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어려서부터 절약하고 살아서 내 자신에게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하지만 남한테 쓰는 것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능력은 모자라지만 자비보시행으로 회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많이 했죠. 그런 취지로 ‘지구촌 행복나눔’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티베트,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에 구호물품 지원을 비롯해 교육기관 설치, 도서관 건립, 체육용품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의 다문화가정도 돕고 싶고, 불우 청소년들의 장학 교육 사업 등에도 치중할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재욕, 식욕, 색욕, 명예욕, 수명욕 등 다섯 가지의 욕락(慾樂)에 깊이 빠져 있다고 무명 스님은 책 속에서 지적한다. 이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제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되어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깊은 나락에 빠져들어 스스로 업의 그릇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성공은 오욕락으로 인해 채우진 업의 그릇을 비워야만 가능하다고 무명 스님은 전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의 고민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기에, 마음이 지어내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병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무명 스님은 조언한다. 자신을 억압하고 옭아매는 순간,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육신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스님은 마음의 병이 되는 그 원인을 이 책 속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행복의 처방전을 쉽게 제시한다. 무명 스님은 마지막으로 호탕한 웃음을 먼저 선보이며 말한다.

“많이 웃으세요. 남앞에서 웃는 웃음도 보시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많이 웃는 것도 우리의 업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마음을 비워야만 웃음이 나오지 비우지 않으면 결코 웃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나 웃으면 짓눌렸던 우리의 마음이 확 터지면서 정화가 되는 해방된 느낌을 체험해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더 크게 웃으세요. 내 업이 달아나고, 업의 그릇이 말끔히 비워집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자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불변의 이치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남에게 욕을 하면 내 입이 쓰레기가 되고, 남을 주먹으로 때리면 내 손은 도끼가 되고 망치가 된다. 온통 나쁜 생각으로 가득차면 내 머리는 똥통이 된다. 이래 가지고서 어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겠는가.

▲지옥과 극락은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극락을 만듭니다. 재욕, 식욕, 색욕, 명예욕, 수명욕 이 다섯 가지 욕망에 갇혀 있으면 지옥이고 벗어나 있으면 극락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여기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의지하면서 서 있습니다. 한쪽을 치우면 다른 한쪽도 함께 쓰러집니다. 이렇게 인과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타인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바람의 힘과 공기의 힘으로 촛불이 흔들리지만 나는 기도의 힘으로도 촛불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촛불을 켠 후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여래불 정근을 염불하면서 기도했다. 그 순간 촛불이 요동치듯 흔들렸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의 힘을 정말 믿기 시작했다.

▲태양은 늘 우리 곁을 돌고 있다. 그런데 그림자를 바꾸어놓는 것은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나에게 찾아온 병도, 마음의 근심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점점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천생연분(千生緣分)’에서 ‘천생(千生)’이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생(一生)’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천생연분’은 태어나고 죽기를 천 번이나 계속하다가 만난 인연이 부부라는 뜻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부부의 연을 가볍게 생각하고 맺을 수 있겠는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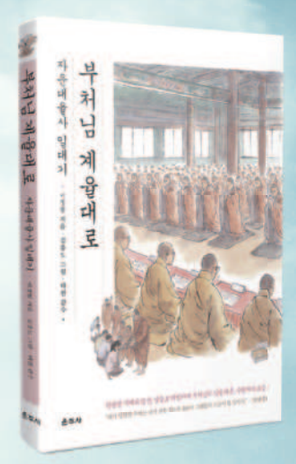
정선 염불감응록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여 현생과 내생에 큰 이익을 얻은 이들이 밝히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염불 감응 이야기!

시방연우 지음, 정전 옮김/신국판/296쪽/값 14,000원

한국불교 계율의 중흥조, 자운 대율사 일대기 출간!

부처님 계율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한평생 지계와 참선, 염불로 여법하게 수행한 자운당 성우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



- 1948년 봉암사 결사에서의 첫 수계 이후 1991년까지,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화상으로서 출재가자 10만여 명에게 수계한 대율사!
- 매일 10만 번의 ‘아미타불’ 고성염불과 아미타경 48편 독송, 미타예경 1,080배 등을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실천하여 계정일치戒淨一致 수행을 제창한 염불 수행자!

이정범 지음, 김종도 그림, 태원 감수/국판/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무용 대제전… 창작, 전통, 현대 등

'제5회 불교무용대전(BDF), 지평을 넘어'
4월 5일부터 28일까지 성균소극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성균소극장에서 제5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불교무용예술의 저변 확대와 밝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불교무용대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무용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의 주최로 2015년에 시작됐으며, 2016년부터 불교무용예술의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계종 주최로 이어져왔다.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불교무용대전은 올해 국내 17개 단체가 참가해 작년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창작무용과 전통무용,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무용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비디오 심사를 통한 예선과 세 번의 본선 공연 그리고 결선을 따로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무용대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무용의 외연과 실적은 개인의 원력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종단 차원에서의 불사는 미미했다. 무용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인의 원력을 모으기 위해 2016년부터 종단 차원의 불교무용대전이 시작됐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1회 불교무용대전은 13개 팀이 4주간 12회의 공연을 진행하면서 무용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불교인이 아닌 이웃종교나 무종교인들도 불교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공연에 참가한 것이 놀라운 점이었다.

2016년, 불교무용대전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주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불교무용의 태동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인의 원력에만 의지하던 한국불교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창작과 전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를 기념하는 불교무용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수상을 통하여 무용계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2017년, 제3회 불교무용대전에서는 확실히 규모나 체계면에서 한층 더 발전했다. 20여 개의 무용팀이 참가하면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한국 무용계의 특별한 무용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제4회 불교무용대전 모습. 태혜신 作 '연화경승무'

2018년, 제4회 불교무용대전은 무엇보다 국제무용제로의 변환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아시아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홍콩의 HKDC(홍콩댄스 컴퍼니), 싱가포르의 오디세이 댄스컴퍼니에서 레지던시를 통하여 불교무용을 선보였으며 한국의 무용가들 역시 불교라는 공통점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2019년 올해는 불교무용대전이 또 한 번 발전한다. 비디오 심사를 통한 예선, 4주 12회의 본선을 통과하여 7개 팀이 결선을 가지는 '대전'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무용계 전공자에 한정되었던 축제를 비전공자들에게도 개방함으로서 불교의 자비와 평등정신을 실현하게 된 것도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5회 째를 맞는 불교무용대전은 해결해야 될 숙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공연과 같이 전공자나 무용예술인들의 관람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불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앞으로 한국불교무용이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라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제5회 불교무용대전 본선은 4월 5일(금)부터 4월 28일(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성균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며, 5월 4일 오후 3시 조계사 야외마당(협의중)에서 결선 및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02)2011-1770.

가슴 속 따뜻하게 번지는 선묵

유현병 문인선화전
갤러리까루나 3월 1~15일

힐링 공간을 추구하는 갤러리 까루나(바로자나 국제선원 내)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현병 문인선화전'을 개최한다.

문인선화는 문인화와 선화의 만남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재라도 교훈을 삼고 가치를 담아 그림으로 묘사하여 그림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으로 느끼고 깨우침을 얻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인화는 문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로 문인들이 지녔던 인문주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세부묘사 등 회화적인 요소보다는 사물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화풍이나 기교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인화는 지필묵의 전통적인 회화 형식 속에 '인문'이라는 내용을 담아 새로운 감상체계를 추구한다.

선화는 '선(禪)'의 세계를 그린 그림으로, 선종(禪宗)의 교의는 물론 선의 정신, 즉 본래 마음의 영역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선종의 이상은 여러 가지 특별한 예술양식으로 표현됐는데, 그 중 전형적인 것은 선에 몰입한 순간 만나게 되는 직관적, 개별적 깨달음을 암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관념의 세계를



현실로 옮기는 작업으로 대부분의 표현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다.

유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문인선화는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문인화와 마음의 영역인 관념의 세계를 그려내는 선화의 만남으로,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현대미술이다. 우리 고유의 '인문'과 그려낼 수 없는 '선'의 세계를 그리는 미술이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소재로 치유의 미학을 추구하며 문인선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읽음으로써 미소 지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특유의 선묵에 따뜻한 메시지를 적어 깨달음의 세계를 전한다.

"행복이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유 작가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동자승의 환한 미소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은 따뜻한 햇살처럼 보는 이의 가슴 속으로 번진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휴식과 안식을 느끼게 하는 그의 그림들은 각박한 삶 속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행복 그리고 위로와 안식을 선물한다.

유병현 작가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유학에 정통했던 조부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붓을 들었다. 국내 개인전 및 해외 단체전 30회를 열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소치미술대전, 경기미술대전 등 여러 차례 공모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 대한민국 문인화 휘호대전 초대작가를 지냈다. 2016년 문인화부문 명인인증(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을 받았으며, 2016년 대한민국문화예술공헌 대상, 대한민국 통일 미술대전 통일부 장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 공헌 대상 등 다수 수상했다. (02)6012-1731.

박재완 기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음악회

'佛音 부처님의 소리'
4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음악회 '佛音 부처님의 소리'를 4월 2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의례위원회와 불교음악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의식음악에서부터 창작 찬불가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의식음악은 염불교육지도위원장인 화암 스님과 노래를 통해 대중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신 스님(서광사 주지)이 한글예불(오분향게, 헌향진언)과 염불조의 삼귀의, 사홍서원, 한글반야심경을 각각 선보인다. 특히 오분향게와 헌향진언은 관현악 반주에 합창으로 편곡했으며, 염불조의 삼귀의, 사홍서원, 한글반야심경은 가락을 염불조로 바꾸어 불교의식음악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국악찬불가는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은경, 마당놀이 '춘풍이온다'에서 추월주역을 맡은 홍승희, 봉은국악합주단 단원인 이이화, 이미리 단원이 출연하여 보렴과 가야지, 무상계, 어화너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무대는 불교가 무속음악에 끼친 영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천도'이다. 원래 진도 씻김굿에서 부르는 무가(巫歌)인데 곡의 가사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가(佛歌)로 되어있다. 노래는 동초제 판소리보존회 이사인 정신예 씨가 부른다.

마지막 창작 찬불가는 니르바나(Nirvana) 교성곡이다. 시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도올 김용옥이 작시했다. 김용옥은 "번뇌 속에 사는 인간, 번뇌 속에 격동치는 한국사회, 그것이 곧 해탈이요 니르바나다"고 했다. '붓다',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용성', '진감'에 이어서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이 새롭게 작곡했다. 노래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불음합창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녀 씨가 부른다.

지휘는 박범훈(불교음악원 원장), 김회경(불교음악원 음악감독), 박천지(봉은국악합주단 지휘자),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 중앙국악관현악단, 합창은 불음합창단, 불교합창아카데미, 봉은사합창단, 메트오페라합창단이 출연한다. 티켓은 불교음악원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R석5만원 S석3만원. (02)3218-4866.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본래 '한 쌍' 협시불, 과학 연구로 찾다





國博 소장 소조보살입상 조사 결과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로운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연구로 본래 '한 쌍' 이었던 협시불상이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불교조각 조사 사업의 최신 성과를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 보고 3〉을 발간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2점의 건칠보살좌상을 비롯한 총 4점의 불상에 대해,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와 2012~2018년 진행한 보존처리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과학적 조사 기법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된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 기자재로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문화재 조사 방법으로 새롭게 도입했고, 이번 불상들의 조사에 적극 활용됐다. 이를 통해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 후 컴퓨터 화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 좌우 종단면, 앞뒤 종단면의 상세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3차원 관찰도 이뤄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이다.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에 대한 CT촬영 결과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하나의 목재로 심을 만들었고, 그 이하는 2단의 목재를 쌓아 완성했다. 머리는 절반으로 가르고 몸체 쪽은 등 뒤를 절개해 목재의 속을 파냈으며, 옷주름과 같은 세부는 점토를 올리거나 목심(木心)을 조각해 조성했다. 또한 불완전한 원목을 보완하고 목심을 연결하기 위해 총 66개의 못을 사용한 것도 촬영 결과 확인됐다.

'덕수2209' CT 촬영해보니
앞선 '덕수1780' 기법 유사
못 66개 사용해 원목 보완
연구 결과물 자료집 발간

연구진은 "촬영 결과 지난 2014년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 보고 1〉에 수록된 '소조지장보살입상(덕수1780)' 과 크기와 양식, 제작기법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은 '소조지장보살입상(덕수1780)' 과 함께 협시보살로 조성된 관음불상으로 판단된다. 현존 사례가 많지 않은 조선 전기 보살입상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박 소장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의 CT촬영 조사 모습. 국박은 CT촬영을 새로운 문화재 보존 기법으로 도입했다.

건칠불상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던 것도 중요한 성과다. 우리나라 전통 건칠불상은 표면에 건칠을 바르기 전 내부의 원형 소조상을 옷주름까지 거의 완전한 형상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삼베와 칠을 바른 뒤 내부의 흙을 제거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이 때 몸 안에는 보조 지지대 등을 쓰지 않고 공간을 비웠다. 이번 단층촬영 조사 결과 "이 같은 방법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나아가 표면에 있는 장신구와 영락, 끈 등만을 따로 만들어서 부착한 점과 삼베와 옻칠의 양을 형태에 맞추어 섬세하게 조절한 점 등이 상세하게 파악됐다.

대형 건칠보살좌상(덕수5547) 조사에서는 눈동자를 다른 재질인 석영으로 끼워 넣는 방식과 귀와 손 등을 별도의 나무로 만들어 못 대신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등의 전통 방식이 확인됐다. 일본 도쿄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 소장의 건칠보살좌상과 한 쌍으로 제작됐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박물관 연구진들은 "이번 조사에 도입된 컴퓨터 단층촬영 조사 결과로 최근 활발해진 중 · 근세 불상과 복장물에 대한 제작기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전시와 한국 불교조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되는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국박 소장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사진 왼쪽)' 과 지난 2014년 조사된 '소조지장보살입상(덕수1780, 사진 오른쪽)' 의 모습. CT조사 등을 통해 양식과 제작기법이 유사해 두 보살상이 협시보살로, 한 쌍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됐다.

만해 '未完 유마경' 다시 세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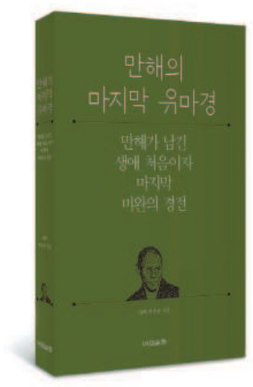
만해 번역한 〈유마경〉 발굴
잡지 연재 · 전집 육필을 묶어
全 14품 중 6품까지만 번역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만해의 마지막 유마경〉〈사진〉은 만해 스님이 만년에 번역했지만 미완으로 그친 〈유마경〉을 담아내고 있다.

실제 이 책은 잡지 '불교' 1940년 2월호와 4월호에 실린 실우(失牛, 만해의 필명)의 〈유마힐소설경강의〉와 400자 원고지 총 148장 분량의 육필 원고를 모아 발간한 〈한용운전집(1973)〉에 실린 〈유마힐소설경〉을 저본으로 했다.

만해 스님은 1933년부터 〈유마힐소설경〉 번역을 시작했고, 이를 '불교' 지에 연재하지만 2회만에 중단됐다. 사후 발간된 전집에서는 연재 이후부터 제6부 사의품 일부까지만 육필원고가 실렸다. 미완이지만 만해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이 하나로 묶여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해 번역의 〈유마경〉은 1914년 발간된 〈불교대전〉과 달리 국한문 혼용임에도 한글의 어법이 두드러지게 많다. 때문에 〈불교대전〉은 현대어의 번역을 거쳐야 읽을 수 있지만, 〈유마경〉은 번역을 거치지 않고 꼼꼼히 정독하면 읽을 수 있다. 물론 불교 한문 읽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수고로움은 더 깊은 〈유마경〉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어 낸다.

해제를 맡는 서재영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으로 평가받듯 만해의 미완의 〈유마경〉도 완결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마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절반의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마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경전이다. 만해의 〈유마경〉은 중생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보살의 삶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고구려 불교미술의 모든 것을 만나다

한국미술사硏, 3~6월 미술사 강좌

한반도 불교 수용과 고구려 불교 미술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오는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연구소에서 박물관대학 2019년 1학기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미술의 수용과 고구려의 강인한 미술'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11회에 거쳐 고분벽화나 불상, 각종 공예품을 통해 고구려 미술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강사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김정희 원광대 교수, 고승희 동국대 교수, 주수완 고려대 교수, 최종택 고려대 교수, 유미나 원광대 교수, 정병모 경주대 교수, 최응천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재 소장처 관리자 교육 연다

불교중앙博, 4월 8~9일

불교문화재를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단체들을 위한 관리 교육이 시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 관리자 유물관리교육' 을 실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불교 문화재 소장,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 및 관리자 스님 △2019년 문화재 다량 소장처 경상경비 지원대상관 △승려연수교육 대상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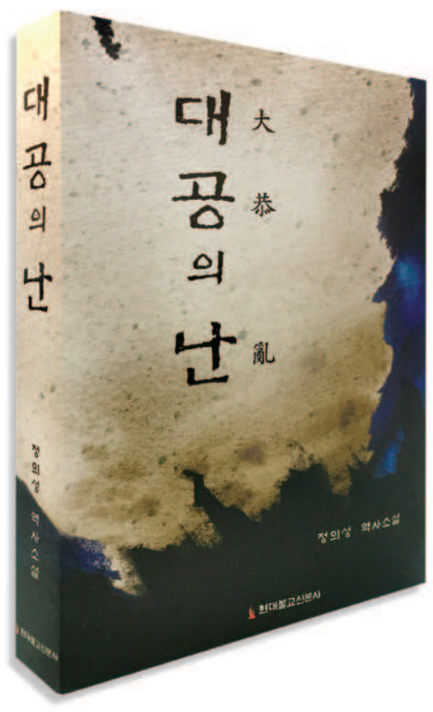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이론 전반에 관련해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유산의 개념과 제도(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불교미술과 세계유산(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사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손영문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 보존환경 관리(김수철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문화재 안전 관리 방법 등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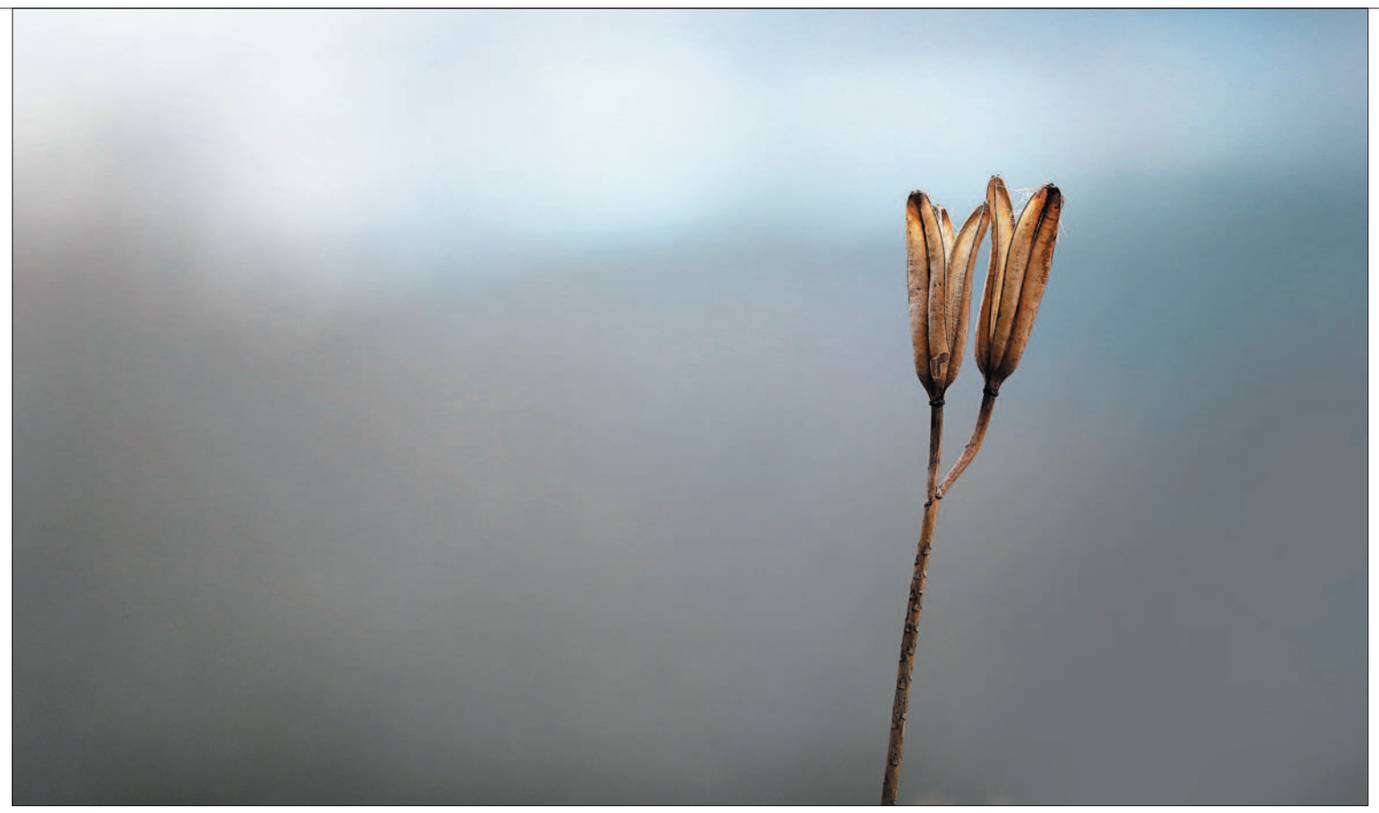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박재완의 PhotoEssay



부고(訃告)

산에 오르니
산은 사라지고
몰랐던 한 소식

우두커니 바라보니
그 대목이 뜨겁다
각자 그렇게…

뜨겁지 않은 삶이 어디 있을까
기억 하나에 밤은 깊고
그 이름 하나에 길은 또 멀어졌다
한 소식 위에
'삶' 이라 적는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㉘ 무기수 김희로 (하)

조국 품에서 진심으로 '참회'한 무기수

1999년 9월 7일, 재일교포 무기수 김희로(65) 씨는 석방된다. 미결수로 구금된 기간까지 더해 31년 만의 석방이다. 김 씨는 석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7년 이상 복역한 외국인 장기수를 국외 추방토록 하는 일본 법규에 따라 추방을 전제로 석방된 후 한국으로 귀화했다. 김 씨 품에는 그의 어머니 유골함이 있었다. 마침내 나는 김 씨 노모와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재일교포 김 씨는 1968년 한 술집에서 "더러운 돼지새끼, 조센징"이라며 멸시한 야쿠자 2명을 죽이고 인근 여관에서 인질극을 벌인 '김희로 사건' 의 주인공이다. 김 씨는 투숙객 13명을 인질로 잡고 일본 경찰과 대치하다 4일 만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김 씨는 혀를 깨물었다. 자결에 실패한 김 씨는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24년을 복역했다.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는 김 씨가 투옥된 지 20년쯤 지났을 때 그와 처음 만났다. 그의 노모 박 씨가 지내는 요양원은 수시로 방문했지만 김 씨를 면회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김 씨는 감옥에서 기독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나는 교화 목적이 아닌 일반 면회로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김 씨가 스님인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다.

어렵사리 김 씨와 면회를 했지만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와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가왔다. 김 씨는 "어머니가 풍으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매일 면회를 오셨다"며 "요양원과 멀리 떨어진 구마모토 형무소로 이감된 뒤로는 몇 년째 뵙지 못해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일본 현행법상 무기수로 복역한 지 10년이 넘은 모범수는 가석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김 씨는 8번이나 교도소 표창을 받은 모범수였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는 김 씨 노모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며 김 씨 구명에 나선 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김 씨 석방운동을 시작했다. 1990년 10만 명을 시작으로 '김희로 가석방' 을 목표로 한 서명을 모아 세 차례 규슈 갱생보호위원회와 일본 법무성에 보냈다. 수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석방 청원서는 효력이 있었다.

그러던 중 잘 알고 지낸 한국 법무부 인사가 일본 법무성에 손을 써줬다. 덕분에 언제든 제약 없이 김 씨를 특별접견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수년 간 김 씨와 면회하며 기록을 꾸준히 남겼다.

어느 날 일본 대검 검사이자 교정국장이 나를 찾았다.

"스님, 이제는 석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김 씨의 신원 보증인이자 신병 인수자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를 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을 제시했다. 일본 입국 영구 불허, 다른 말로 '추방' 이었다. 교정국장은 "일본 형무소는 적법한 재판절차를 걸쳐서 형을 확정 지은 것이다. 그러니 김 씨가 한국에 가서도 일본에 대해 험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가야한다"



태극기와 모친의 유해를 안고 귀국한 무기수 김희로 씨와 영정을 든 삼중 스님.

약 20년 구명운동 끝에
'추방' 조건부로 가석방
귀국 후 폭력범죄자로서
비참한 말년으로 생 마감

고 덧붙였다. 나는 그러겠다고 즉답했다.

출소를 1년 앞둔 1998년 김 씨의 어머니 박득숙(92) 씨는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임종 직전 박 씨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 하고 의식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들 이름을 "긴키로- 긴키로오(김희로의 일본식 발음)"하고 불렀다. 나는 아들과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석방 소식을 전하러 김 씨를 바로 만나야만 했다. 실제 석방까지는 순조롭지 않았다.

김 씨는 법무성 조건을 듣고 다른 조건을 달았다. 자신이 일본을 떠나기 전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곳에 3일간 머무르며 참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한 일본 감옥에서 평생 살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머무르는 3일간 또 다시 인질극을 벌일지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석방과 동시에 공항으로 이송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어머니 유골과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는 김 씨 어머니가 재가한 뒤 낳은 형제들의 반발이 문제였다. 의부형제 중 첫째 동생은 "김희로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형무소를 드나들며 평생 어머니를 괴롭힌 그에게 어머니 유골을 맡길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나는 일본어 통역가와 밤새 김 씨 의붓동생을 설득했다. 결국 분골해 반만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야쿠자들은 김희로가 가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김 씨는 물론이고 석방운동을 주도한 나까지 함께 해치겠다는 협박 편지가 끊이지 않았다. 김 씨가 죽인 야쿠자는 당시 지방 조직의 두목이었지만 그 사이 일본 3대 조직으로 커져 전국에 퍼졌다.

일본 법무성은 김 씨 석방에 대한 일시와 장소 등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김 씨와 내가 출소 직후부터 입을 방탄조끼까지 마련했다. 나는 스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양복 차림으로 김 씨와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귀국했다. 귀화한 김 씨는 친부 성 씨를 되찾아 권희로가 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김희로' 로 기억했다. 부산에 정착한 그는 초반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할머니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등 모금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말년은 비참했다. 김 씨는 더 이상 민족차별에 저항하며 의로운 전쟁을 벌인 의인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치정에 얽힌 폭력범죄자로 다시 한국에서 쇠고랑을 차기 시작했다.

이미 귀국 당시 71세 고령의 나이였던 김 씨는 후견인이 필요했다. 나는 김 씨가 감옥에서 얻은 전립선암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약 12년 간 그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김 씨는 죽기 전 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조국에 돌아와서 10년 넘게 동포들과 살다 갈 수 있었겠습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의 반은 김 씨 아버지의 고향에, 절반은 어머니 유골이 있는 일본 땅에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김 씨의 첫째 의붓동생은 유골을 합장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다른 여동생이 김 씨 유골을 거두기로 했다. 나는 김 씨 유골을 조금 남겨 가지고와 그가 인질극을 벌인 후미여관에 뿌리면서 "이 현장에서 비로소 '김의 전쟁' 은 끝났다"고 읊조렸다. 〈끝〉

정리=김지원 기자

